

2025.1.2(목) Signal Report



시그널리포트
investment intelligence

시그널리포트는 인공지능으로 수집되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증시 분석 서비스이며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구독자 본인 외에 다른 사람에게 공유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며, 적발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본 시그널리포트의 내용은 주식의 매도, 매수 등을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매매는 본인의 판단으로 하십시오.

2025.1.2(목) Signal Report

<전일 시장 정리>

전일 시장 정리는 한국에서 오직 시그널리포트만 진행하고 있는 '개인투자용 정리'입니다. 때문에 아래 내용 정도는 숙지하고 있었어야 '전일 시장을 잘 이해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그널리포트는 '시그널 이브닝'을 통해 하루를 정리하고 있으며, 익일 서머리를 통해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습니다. 잘 따라오시면 분명 실력 향상이 일어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최신의 기사를 봐도 과거와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강한 배팅을 할 수 있을까요? 수익을 내고 싶은 분들은 꼭 숙지해 주세요.

[시장 정리]

●전일 시장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성장 전망에 로봇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 로봇 >

#2025년, 휴머노이드 산업 원년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규모가 연평균 50% 성장을 거듭해, 2035년에는 약 55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 이란 전망에 레인보우로보틱스 +15%, 에스비비테크 +13%, 에스피지 +10% 등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주 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상반기 내 휴머노이드 로봇용 컴퓨터 출시

●엔비디아가 내년 상반기에 휴머노이드 로봇용 소형 컴퓨터 최신 버전인 '젯슨 토르'를 출시할 예정이 라는 보도에 엔비디아의 아이작 로봇 공학 플랫폼 파트너사인 로크웰오토메이션의 협력사로 로봇모션 제어기를 공급 중인 알에스오토메이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젯슨 모듈 국내 독점 공급

●지난해 엣지AI와 로보틱스를 위한 엔비디아 젯슨 모듈과 개발자 키트 전 라인업을 국내에 공급한다고 발표한 바 있는 유니퀘스트 **상한가**, 엔비디아의 차량 통제 보드에 탑재되는 카메라 렌즈를 공급한 세코 닉스 +3% 상승했습니다.

●산업통상부 지원사업에 참여해 3차원 비전 기반 AI 로보틱스 기술로 휴머노이드 로봇 및 실증 개발 등 을 수행할 예정인 씨메스 +14%, 휴머노이드 로봇에 적용할 수 있는 '플렉시블 센서 기반 촉감 저장 재생 플랫폼 개발' 국책과제를 통해 원천기술을 확보한 이미지스 +14% 상승했습니다.

●로봇 설계 및 제조 전문회사로 하지 재활로봇 '워크봇'을 판매하는 피앤에스미캐닉스 +10% 상승했습 니다.

#알레그로 핸드 채택

●자회사인 원익로보틱스가 개발한 알레그로 핸드가 엔비디아의 디엑스트림 프로젝트 로봇팔로 채택됐 다는 소식에 원익홀딩스 +10% 상승했습니다.

#보스턴다이내믹스-엔비디아 협업 기대감

●보스턴다이내믹스의 4족 보행 로봇 '스팟'이 엔비디아의 모듈을 활용하고 있어 휴머노이드로 확장해 기술 고도화를 노릴 것이라는 전망에 보스턴다이내믹스에 유압 로터리액추에이터를 납품한 바 있는 케이 엔알시스템 +9%, 보스턴다이내믹스의 국내 독점 판권을 보유한 클로봇 +7% 상승했습니다.

●대동이 농기계와 로봇이 자율 무인 농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온디바이스 AI 플랫폼을 개발해 내년에 출시할 계획이라는 소식에 대동기어 +4% 상승했습니다.

< 양자컴퓨터 / 양자암호 >

●미국 시장에서 양자컴퓨터 관련주가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극저온 저잡음 증폭기 모듈 분야 독점기업 로우노이즈팩토리오와 국책과제를 통해 마이크로파모놀리식집적회로(MMIC)를 개발 중인 큐에스아이 **상한가**, 한울소재과학 **+16%**, 코위버 **+12%** 등 양자암호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양자 제어장비 상용화, 양자 기술 전반의 광범위한 지식재산권 등을 보유한 에스디티(SDT)에 투자 및 파트너십을 구축한 파인텍 **+24%** 상승했습니다.

●국내 양자 선두 기업인 SK텔레콤과 양자기술 협력을 한 바 있는 케이씨에스 **+13%**, 세계 최초로 양자 내성암호화 표준 차세대 인증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국 국립표준연구소의 인증을 획득한 아톤 **+4%** 상승했습니다.

< 정치 >

●차기 대선 여론조사 결과,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에 동의하는 사람이 60%라는 보도에 이재명 관련주 오리엔트바이오 **상한가**, 오리엔트정공 **+13%**, 이스타코 **+10%** 등 상승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대선 출마 기대감에 오파스넷 **+12%**, 노을 **+9%**, 대상홀딩스 **+3%** 상승했습니다.

< BIO / 의료시 >

#'셀루덤 필·셀루덤 젠' 순차적 상용화

●주사제형 피부이식재인 무세포동종진피 신제품 '셀루덤 젠'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힌 셀루메드 **상한가**, 최대주주 에스라가 100억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소식에 퀀타매트릭스 **+17%** 상승했습니다.

●"파트너사 이뮤노반트가 내년부터 IMVT-1402 4-5개 적응증에 대해 미국 임상3상을 개시할 것"이라며 내년 상업적 가치를 증명할 것이라는 증권가 분석에 한올바이오파마 **+15%** 상승했습니다.

●글로벌 빅파마와 비만치료제 기술수출 계약을 마무리 짓는 단계라며, 늦어도 내년 초 달성하겠다고 밝힌 올릭스 **+13%**, 내달 미국에서 개최되는 'BFC 글로벌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초청받아 아토피 치료제 '누겔'의 임상 성과 발표 및 기술이전 논의를 본격화한다고 밝힌 샤페론 **+10%** 상승했습니다.

●"진행성핵상마비 치료제 GV1001 2a 임상시험 데이터가 고무적"이라며, 글로벌 3상 임상에서는 패스트트랙까지 생각해볼 수 있다는 분석에 쟈백스 **+8%** 상승했습니다.

●한국 특허청으로부터 '줄기세포 동결제형의 해동 후 안정성 증대 조성물'에 대한 특허를 등록 완료했다고 밝힌 네이처셀 **+8%** 상승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두번째로 히알루로니다제 개발에 성공해, 본격 실적 성장 전망에 알테오젠 **+2%** 상승했습니다.

< 개별주 >

#일정매매 #12월 31일, 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확정

●오는 31일 정부의 4차 탄소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확정 일정을 앞두고, 탄소배출권 분야에 특화해 온 실가스 감축 사업을 영위하는 에코아이 **상한가**, 켐트로스와 그린케미칼 **+9%**, 에어레인 **+5%** 상승했습니다.

●제주항공 사고로 공항 주변 조류 퇴치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드론 탑재형 레이저 조류 퇴치 장치 특허를 보유한 제노코 **+11%**, 사고가 난 보잉 여객기를 보유하지 않은 에어부산 **+3%**, 제주항공 **-8%** 하락했습니다.

●스페이스X와 루미르X 1호기에 이어 2호기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2030년까지 18개의 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힌 루미르 **+7%** 상승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1월 1일부터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송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천연가스 가격 상승 전망에 지에스이 **+7%** 상승했습니다.

QUIZ

[문제 1] 다음 빈칸에 해당하는 종목은 무엇일까요?

엔비디아가 내년 상반기에 휴머노이드 로봇용 소형 컴퓨터 최신 버전인 '젯슨 토르'를 출시할 예정이라는 보도에 엔비디아의 아이작 로봇 공학 플랫폼 파트너사인 로크웰오토메이션에 로봇모션제어기를 공급 중인 **00000000** 상승했습니다.

[문제 2] 다음 빈칸에 해당하는 종목은 무엇일까요?

보스턴다이내믹스의 '스팟'이 엔비디아의 모듈을 활용하고 있어 휴머노이드로 확장해 기술 고도화를 노릴 것이란 전망에 보스턴다이내믹스에 유압 로터리액추에이터를 납품한 바 있는 **00000000**상승했습니다.

[문제 3]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주 3종목을 작성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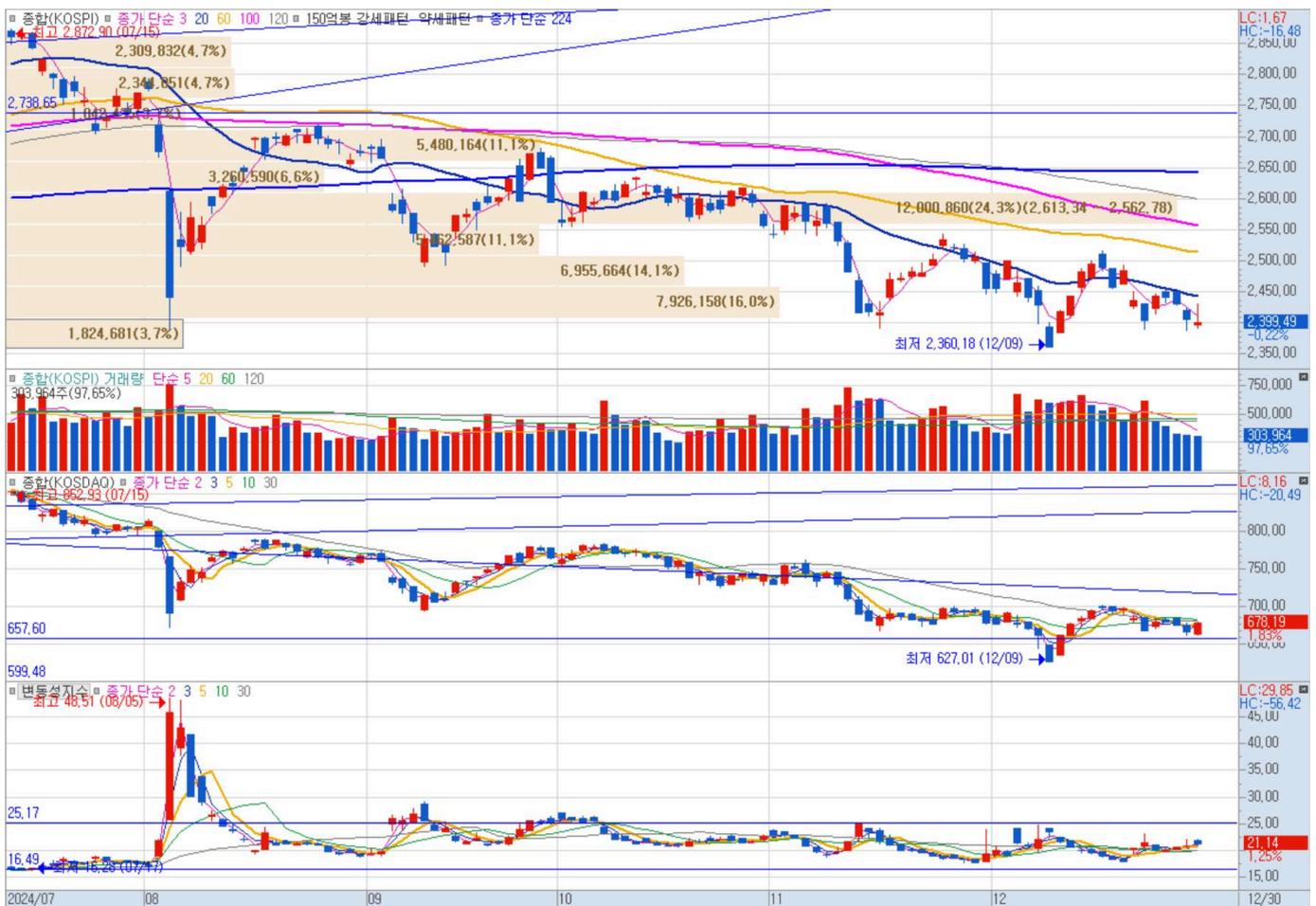
1번 정답: 알에스오토메이션 / 2번 정답 : 케이엔알시스템 / 3번 정답 : 레인보우로보틱스, 에스비비테크, 에스피지, 알에스오토메이션, 유니퀘스트, 씨메스, 이미지스 등

< Daily point >

'Daily Point'는 당일 증시의 상황을 설명 드리는 코너입니다.

상황을 알아야 업황을 예측할 수 있고 종목을 고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스윙과 장투에 있어서도 필수적입니다.

하루 하루 쌓아가는 'Daily Point'를 통해 주식 실력 근원이 더욱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리언즈 가족 여러분.

1월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1월에 강한 섹터가 그 해의 주도주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24년 1월의 바이오가 그랬고, HBM이 그랬고, 23년의 2차전지가 그랬죠.

올해 1월에는 어떤 섹터가 강할지 보는게 중요합니다.

일단 시장은 연말에 휴머노이드 관련주가 강한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미국 빅테크들이 너나할 것 없이, AI를 활용한 로봇 경쟁에 뛰어 들었죠.

휴머노이드를 주목하고 있되, 오늘부터 막 적극적으로 매수해서 수익을 내겠다는 생각보다(저는 매년 1월 2일은 손실로 시작했었답니다.. 욕심이 앞서서..) 시장의 움직임을 대체적으로 보는 데 집중하세요.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생각할 건 따로 있습니다.

딱 5년 전. 2020년 3월. 우리는 엄청난 주식 시장의 하락을 경험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범람하면서 세상을 멸망 직전까지 몰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죠. 아포칼립스란 이런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연준을 비롯해 세계의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주식 시장은 폭등했죠. 2020년과 2021년은 코스닥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스닥과 함께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들 무시하고 있었지만, 인플레이션이 올라오기 시작했죠. 결국 주식 시장은 2021년 6월부터 침체를 겪기 시작했습니다(미국은 2022년 금리인상부터). 그 이후에는 SVB사태도 겪고 하면서 시스템적 이슈가 나오기도 했죠.

그리고 202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금리인하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채권 금리와 모기지 금리는 더욱 상승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금 미국 상업용 부동산은 아주 큰 위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트럼프가 당선됐지만, 그는 더 큰 인플레이션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인플레이션 속에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더 높은 금리의 채권을 발행할거라는 예상에, 채권 시장은 매도가 많았죠(어려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과 테슬라가 트럼프의 당선과 함께 급등했습니다. 변한 게 있냐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올랐습니다. '기대감'으로요. 테슬라는 가치평가로는 계산할 수 없는 주가이며, 비트코인은 가치가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 FED는 금리 인하를 중단했죠. 2024년은 코로나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정리되고,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기대했던 한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5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인플레이션이 정리될 것 같나요? 인플레이션과 함께 늘 주식 시장은 움직여왔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하다고 주식시장이 망하지는 않아요. 트럼프는 진정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면서 더 큰 거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리 인상'이 나오면 세계는 다시 휘청입니다. 꿈과 희망도 실물 부동산 앞에서는 아무 것도 못합니다.

1월 첫날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했나요?

작년 마지막 날 거래량은 역사적으로도 대단히 적었습니다. 다들 놀러나간 거겠죠. 오늘은 거래량이 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뜻한 차와 함께 편안히 시장을 보시죠.

어떤 일이 올해 벌어지든, 엄청난 기회가 될 것입니다.

2025 시장 전망도 다음 주 내에 공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omad:

한국 저평가 상태입니다.

쫄지말고, 모두가 조롱할 때 실체를 보세요.

미국이 거품 상태고요.

오늘 데일리포인트의 경고성 멘트는 모두 미국 시장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조정을 받으면, 한국도 당연히 받겠지만, 진정 아무 걱정없이 살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현금 50%는 유지하면서, 일단 연초는 달려봅시다.

현금 50%는 기회가 터졌을 때, 대응시다.

지금 거래량이 적어서 무리할 때가 아니에요.

< TODAY ISSUE >

'Today Issue'는 당일 Signal report의 전체를 최대한 축약한 버전입니다.

전체 시그널 리포트를 보면서 공부하는게 제일 좋지만, 시간이 없거나 갑작스런 일정이 생긴 분들은 'Today Issue' 코너만이라도 보아야 합니다.

주식은 쌓아가는 것입니다. 하루도 놓치지 않고 1년을 공부해보면, 2년차부터는 '주식은 반복이다'라는 말을 깨닫게 됩니다.

반복의 역사를 알다보면 '다음에 생길 이벤트'를 알게 되고, 미리 오를 자리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로봇 #AI

#삼성전자 #레인보우로보틱스 최대주주 #로봇

삼성전자, 레인보우로보틱스 최대주주로... 미래로봇 사업 속도

삼성전자는 지난해 868억원을 투자해 지분 14.7%를 갖고 있는 레인보우로보틱스에 대해 보유 중인 콜옵션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지분을 35.0%로 늘려 기존 2대 주주에서 최대 주주가 된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삼성전자의 연결재무제표상 자회사로 편입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 기술에 레인보우로보틱스의 로봇 기술을 접목해 지능형 첨단 휴머노이드 개발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이번에 신설한 미래로봇추진단은 휴머노이드를 포함한 미래로봇 기술 개발에 집중하는 조직으로, 향후 패러다임을 바꿀 미래로봇의 원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핵심 성장 동력화한다는 계획이다.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창업 멤버이자 카이스트 명예교수인 오준호 교수는 레인보우로보틱스 퇴임 후 삼성전자 고문 겸 미래로봇추진단장을 맡는다.

- **관련주: 에스피지, 알에스오토메이션, 삼익THK, 아진엑스텍, 인탑스, 이랜시스, 에스비비테크, 에스오에스랩, 우리넷**

#CES #젠슨 황 #AI

젠슨 황, AI 다음 물결 밝힌다...8년만의 CES 기조연설

1월6일 오후 6시 30분(한국 시간 1월 7일 오전 11시 30분) CES 스테이지에서 엔비디아 창립자이자 CEO인 젠슨 황이 기조연설에 나선다. 전 세계는 무엇보다 젠슨 황의 입에서 어떤 'AI 비전'이 나오느냐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그는 AI 전도사 역할을 넘어 로봇과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 가상세계, 스마트 공장 등 다양한 이슈를 주제로 미래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젠슨 황의 로봇 분야에 대한 관심은 전 세계인의 시선을 사로 잡고 있다. 황 CEO는 지난 10월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레노버 테크 월드' 행사에서 "AI는 본질적으로 로봇"이라고 강조했다.

- **관련주: 유니퀘스트, 에스넷, 세코닉스, 알에스오토메이션, 원익홀딩스, 티로보틱스, 케이엔알시스템, 클로봇, TPC, 씨이랩**

#미중패권전쟁 #바이트댄스 #엔비디아

美 반도체 규제 무색... 中 바이트댄스, 엔비디아 칩 10조원어치 조달 계획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바이트댄스는 내년 70억달러(약 10조3000억원)를 투자해 엔비디아 주력 AI 칩 '호퍼' GPU(그래픽처리장치)를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구상이 현실화할 경우 바이트댄스는 미국의 강력한 규제에도 엔비디아 칩을 가장 많이 소유한 글로벌 기업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미 정부는 첨단 반도체 기술이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22년 10월부터 중국으로의 AI 칩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디인포메이션은 바이트댄스가 엔비디아 첨단 칩을 중국으로 직접 들여오지 않고 동남아시아 지역 곳곳에 있는 데이터센터에 비축해 둔다고 전했다. 미 규제와 상관없는 국가의 데이터센터에서 칩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 **관련주: 이수페타시스, 두산, 솔루스첨단소재, 덕산하이메탈, 티에스이, 엠케이전자, 한미반도체, 워트, 와이씨캠, 마이크로투나노, 퓨릿, 아이엠티, 에스티아이, 레이저셀, 이오테크닉스**

#미중패권전쟁 #해킹 #보안

中 해커에 뚫렸다...발각 뒤집힌 美 재무부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해커가 재무부 직원 컴퓨터와 비기밀 문서에 접근했다"며 "이는 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고"라고 규정했다. 미국 정부는 서둘러 중국의 해킹 공격에 대한 보복 조치 마련에 나섰다. 앤 노이버거 백악관 사이버·신기술 담당 국가안보부보좌관은 "(새해) 1월 미국의 중요 인프라를 보호하고 중국의 사이버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 **관련주: 샌즈랩, 소프트캡프, 모니터랩, 싸이버원, 시큐센, 이글루, 한씩, 휴네시온, 라온시큐어, 케이사인, 지니언스, 드림시큐리티, SGA솔루션즈**

#우크라이나 재건

젤렌스키 "러 막고 전쟁 끝내기 위해 모든 것 다할 것"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연설을 발표하고 "2025년이 우리의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평화가 선물로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알고 있으나 러시아를 막고 전쟁을 끝내기 위해 모든 일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 **관련주: 대동기어, SG, 전진건설로봇, 에스와이, 코오롱글로벌, 다산네트웍스, 삼부토건, 디와이디, 범양건영, 스펜코, 인디에프, 대모, 현대에버다임, TYM**

#원자재 #천연가스

美 하루새 천연가스 선물가격 16% 폭등

뉴욕상업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2월 인도분 천연가스 선물 가격 증가는 100만BTU당 3.936달러로 전 거래일 증가 대비 16% 올랐습니다. 이는 해당 상품 선물거래가 시작된 2012년 이후 가장 큰 일간 상승률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은 이날 오전 장중 100만BTU당 4.2달러까지 올라 전장 대비 24%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내년 1월 중 미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파가 닥칠 것이라는 예보가 나오면서 천연가스 수요 증가 기대로 이어졌습니다.

- **천연가스 관련주: 지에스이, 대성에너지, 대성산업, SH에너지화학, 큐로홀딩스**

#탄소배출권 #홈트레이딩시스템 거래

2025달라지는 것들... '탄소배출권'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 통해 거래 가능

올해 6월부터 배출권 이월 제한 기준도 완화된다. 이전에는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이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이 남을 경우 배출권 순매도량(매도량-매수량)의 3배만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지만, 올해부터는 이 같은 제한이 순매도량의 5배로 완화된다. 기업이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 양이 실제 배출량보다 적은 경우 동일하게 보유한 배출권 전량을 이월할 수 있다. 올 하반기부터는 배출권 거래 중개업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할당 대상 업체와 금융기관 등은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를 통해 배출권 위탁 거래를 할 수 있다. 기존에는 한국거래소 등 배출권 거래소를 통한 직접 거래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배출권 거래 중개 회사로 등록된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을 통해 거래가 가능해진다.

- **관련주: NH투자증권, 에코아이, 에코프로에이치엔, 한솔홈데코, 에어레인, 그린케미칼, 유니드, 에코바이오, KC코트렐, 켐트로스, 태경비케이, 클라우드에어, 웨이버스, 동방**

<Signal Digest>

[경제 일반]

코스피, 나홀 연속 내려 2,400선 내줘...코스닥은 상승(종합)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거래대금은 각각 5조2천710억원, 4조7천700억원으로 집계됐다.

달러-원, 야간장서 1,475원 찍고 후퇴...1,472원대 마감

외환당국, 3분기 '환율 안정'에 2억달러 사들였다

이차전지·로봇주 사모으는 외국인

지난 30일 코스닥시장에서 2373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같은 날 코스닥에서 2563억원어치를 판 개인과 159억원어치를 산 기관과 대조적이다.종목별로 보면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집중되기 시작한 지난해 12월 23일부터 현재까지 **에코프로비엠에 581억5400만원에 달하는 순매수** 대금이 몰렸다. 이는 해당 기간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 1위 기록이다. **에코프로비엠 외에도 엔캠(303억9000만원), 에코프로(205억3500만원)** 등 이차전지 업종에 적극적인 매수세가 나타났다.외국인은 이차전지 업종 외 **레인보우로보틱스(431억4100만원), HLB(268억2600만원), 신성델타테크(131억200만원), 에스티팜(109억900만원)** 등에 100억원이 넘는 투자를 이어갔다.

증권가, 코스피 1월 전망 2290~2650... "과매도권 진입"

"새해 증시 변곡점은 트럼프 취임일... 1기 때와 다를 것"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일은 오는 20일이다. 앞서 두 달간 '트럼프 트레이딩'이 진행됐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리한 지난해 11월 5일 이후 미국 주식시장은 2.3% 올랐지만,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주식시장은 4.2% 빠졌다.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미국 비중은 65.7%까지 불어났다.한화투자증권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에 초고율 관세를 부과해 위안화 약세가 깊어지면, 신흥국 시장 전반의 변동성이 커질 수는 있다고 봤다. 그럼에도 올해 1분기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리기 좋은 시점이라고 평가했다.박승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식은 주변 여건이 좋을 때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질 게 없을 때 사야 한다"며 "국내 주식 실적이 하향되는 구간이어서 모멘텀(상승 동력)을 따라다니기보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밸류 플레이(저평가 종목 투자)가 유효할 것"이라고 했다.

애덤 포즌 PIIE 소장 "韓, '친중' 돌아설 때 아니다...美반응 아주 나쁠 것"

[경제/인구 구조 변화]

너무 빨리 늙은 韓경제... "남은 골든타임 15년"

새해부터 2차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절반 깎아준다

내년 공무원 보수 3% 인상...9급 초봉 처음으로 200만원 넘어

[국제-미중패권전쟁]

中 해커에 뚫렸다...발각 뒤집힌 美 재무부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해커가 재무부 직원 컴퓨터와 비기밀 문서에 접근했다"며 "이는 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고"라고 규정했다.미국 정부는 서둘러 중국의 해킹 공격에 대한 보복 조치 마련에 나섰다. 앤 노이버거 백악관 사이버·신기술 담당 국가안보부보좌관은 "(새해) 1월 미국의 중요 인프라를 보호하고 중국의 사이버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 **관련주: 샌즈랩, 소프트캠프, 모니터랩, 싸이버원, 시큐센, 이글루, 한씩, 휴네시온, 라온시큐어, 케이사인, 지니언스, 드림시큐리티, SGA솔루션즈**

中 중심 희토류 공급망 흔드는 美...공급선 다변화로 주도권 확보 나서

美보수진영서 '머스크 안보위협론' 확산..."중국과 깊은 관계"

화웨이·ZTE 美 퇴출 가시화...삼성 반사이익 기대

미국 통신 장비 시장에서 중국 장비사의 퇴출이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삼성전자를 비롯한 글로벌 통신장비 회사들의 반사이익이 점쳐지고 있다.

[국제-미국]

[뉴욕증시] 사흘 내리 하락세로 2024년 마감...S&P500, 2년 상승률 53%

워드부시 "올해도 엔비디아"...AI혁명서 승리할 10개 후보 선정

워드부시는 트럼프 2기 정부가 규제 완화에 나설 경우 2025년에도 기술 업종 주가가 평균적으로 25%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워드부시의 분석가들은 또 현재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AI 하드웨어 업체들이 주도하는 AI 파티에 더 광범위한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워드부시가 뽑은 **2025년 AI혁명의 승리자 가운데 1위는 여전히 엔비디아이다. 2위 마이크로소프트, 3위 팔란티어, 4위 테슬라, 5위 구글 모회사 알파벳, 6위 애플 7위 몽고DB, 8위 페가시스시스템스, 9위 스노우플레이크, 10위 세일즈포스이다.**

美보수진영서 '머스크 안보위협론' 확산..."중국과 깊은 관계"

[국제-유럽]

젤렌스키 "러 막고 전쟁 끝내기 위해 모든 것 다할 것"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연설을 발표하고 "2025년이 우리의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평화가 선물로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알고 있으나 러시아를 막고 전쟁을 끝내기 위해 모든 일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 **관련주: 대동기어, SG, 전진건설로봇, 에스와이, 코오롱글로벌, 다산네트웍스, 삼부토건, 디와이디, 다산솔루에타, 이노인스트루먼트, 비에이치아이, 자연과환경, 범양건영, 스펜코, 인디에프, 대모, 현대에버다임, 수산중공업, 서연탑메탈, 대창단조, 동일고무벨트, HD현대건설기계, 신스틸, 한미글로벌, 유신, 희림, 도화엔지니어링, 현대건설, 삼성물산, TYM**

미, 우크라이에 8조원대 대규모 원조...트럼프 취임 앞 원조 예산은 바닥

[국제-중국]

시진핑 신년사 배경에 국기·관리장성만..."외풍 극복 의지 강조"

중국軍, 세계 최초로 군용 5G 시스템 개발... 1만대 군사로봇 동시 제어

중국이 세계 최초로 전장(戰場)에서 운용 가능한 군사용 '5G(5세대이동통신) 이동 기지국'을 개발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31일 중국 학술 논문을 인용해 보도했다. 지상 기지국이 없거나 위성 신호가 손상된 전장에서도 수만 대의 군사 로봇을 동시 제어할 수 있는 통신 기술을 중국이 다른 나라에 앞서 손에 넣었다는 것이다.

대만 총통 "中과 대등·건강 교류 원해...中이 먼저 성의 보여야"

[원자재]

러, 우크라 가스관 잠근다...EU, 한겨울에 공급 5% 감소

우크라, 러시아산 가스 공급 중단...유럽 가스값 1년 만에 최고

시장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시장에서는 에너지 소비량이 큰 겨울철 가스 공급 차질로 슬로바키아 등 일부 국가의 가스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美 하루새 천연가스 선물가격 16% 폭등

뉴욕상업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2월 인도분 천연가스 선물 가격 증가는 100만BTU당 3.936달러로 전 거래일 증가 대비 16% 올랐습니다. 이는 해당 상품 선물거래가 시작된 2012년 이후 가장 큰 일간 상승률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은 이날 오전 장중 100만BTU당 4.2달러까지 올라 전장 대비 24%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내년 1월 중 미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파가 닥칠 것이란 예보가 나오면서 천연가스 수요 증가 기대로 이어졌습니다.

- 천연가스 관련주: 지에스이, 대성에너지, 대성산업, SH에너지화학, 큐로홀딩스, 포스코인터내셔널, LX인터내셔널, 현대코퍼레이션, 일승

[국방]

"北 비핵화 포기하자"...美서 고개드는 현실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러시아·이란·북한의 반미 연대를 무너뜨리기 위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포기하고 친분이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미 전문가들이 주장했다.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평화 협상을 하라는 것인데 트럼프 2기 출범을 계기로 미국 내에서 이 같은 목소리가 확산할지 주목된다.미 싱크탱크 실버라도폴리시액셀러레이터의 대표인 드미트리 알페로비치와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의 세르게이 라드첸코 교수는 29일(현지 시간) "트럼프와 김정은의 후반전, 세계를 흔들 수도" 제하 NYT 기고에서 이같이 제언했다.

[CO2 / 신재생]

中 폴리실리콘 빅3 감소...韓 태양광 기업 별드나

중국 태양광 폴리실리콘 1~3위 업체가 연말아 생산량 감축을 선언했다. 과잉 공급으로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락해 실적이 악화하자 이를 만회하려는 전략이다. 세계 2위 시장인 미국에서 중국산 태양광 제품이 퇴출당할 위기에 처하자 선제 대응에 나섰다 분석도 나온다.

2025달라지는 것들...'탄소배출권'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 통해 거래 가능

올해 6월부터 배출권 이월 제한 기준도 완화된다.이전에는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이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이 남을 경우 배출권 순매도량(매도량-매수량)의 3배만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지만, 올해부터는 이 같은 제한이 순매도량의 5배로 완화된다. 기업이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 양이 실제 배출량보다 적은 경우 동일하게 보유한 배출권 전량을 이월할 수 있다.올 하반기부터는 배출권 거래 중개업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할당 대상 업체와 금융기관 등은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를 통해 배출권 위탁 거래를 할 수 있다.기존에는 한국거래소 등 배출권 거래소를 통한 직접 거래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배출권 거래 중개 회사로 등록한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을 통해 거래가 가능해진다.

- 관련주: NH투자증권, 에코아이, 에코프로에이치엔, 한솔홈데코, 에어레인, 그린케미칼, 유니드, 에코바이오, KC코트렐, 켐트로스, 태경비케이, 클라우드에어, 웨이버스, 동방

[미래차]

"리튬 가격 내년에도 암울"...K-양극재, 실적 반등 멀어지나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올해 3분기 킬로그램(kg)당 리튬 시세는 76위안이지만 올해 4분기 가격은 72.87위안 정도로 예상된다. 새해도 1분기와 2분기 리튬 가격은 이보다 낮은 68.86위안, 69.10위안 수준으로 전망된다. 미국뱅크오브아메리카(BoA)도 새해 리튬 가격의 약세가 이어질 것이라 내다봤다. BoA는 현재 810달러 수준인 스포듀민(리튬 원석)의 가격이 새해에는 750달러 정도일 것으로 관측했다. BoA는 "리튬 생산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에서 활동을 줄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시장의 공급 과잉을 해소하려면 전기차 보급률이 현재보다 10%포인트(p) 높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7500달러 세액공제 폐지시 美 전기차 판매 영향은?

마켓워치는, 따라서 세액 공제가 폐지되어도 테슬라의 저가 모델이 정상적으로 출시되면 판매량은 거의 줄지 않거나 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Tesla to start deploying V4 Superchargers in China in 2025

Tesla, 2025년 중국에 V4 슈퍼차저 배치 시작

[삼성전자 / 반도체]

올해도 믿을 건 HBM...1분기 D램·낸드 가격 8~15% 하락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D램 가격은 8~13%, 낸드 가격은 10~15%가량 떨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트렌드포스는 "메모리 업체들은 올해 1분기에 재고 수준 증가와 주문 수요 약화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잠재적인 수입 관세에 대비한 노트북 제조 업체들의 조기 재고 비축도 가격 하락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고대역폭메모리(HBM),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eSSD)와 같은 인공지능(AI) 특화 반도체의 견조한 수요와 가격 흐름이 범용 메모리 가격 하락 폭을 일부 상쇄하면서 당시와 같은 최악의 상황으로는 치닫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현재는 우세하다. 특히 지난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HBM은 올해도 견조한 수요를 유지하며 전체 D램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트렌드포스는 "HBM은 급증하는 AI 수요에 힘입어 D램 산업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부상했다"며 "특히 HBM3E(5세대)는 2025년에도 타이트(부족)한 공급이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삼성전자, 2나노 파운드리 고객사 추가 수주... "초기 수율 확보 청신호"

美 반도체 규제 무색... 中 바이트댄스, 엔비디아 칩 10조원어치 조달 계획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바이트댄스는 내년 70억달러(약 10조3000억원)를 투자해 엔비디아 주력 AI 칩 '호퍼' GPU(그래픽처리장치)를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구상이 현실화할 경우 바이트댄스는 미국의 강력한 규제에도 엔비디아 칩을 가장 많이 소유한 글로벌 기업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미 정부는 첨단 반도체 기술이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22년 10월부터 중국으로의 AI 칩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디인포메이션은 바이트댄스가 엔비디아 첨단 칩을 중국으로 직접 들여오지 않고 동남아시아 지역 곳곳에 있는 데이터센터에 비축해 둔다고 전했다. 미 규제와 상관없는 국가의 데이터센터에서 칩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 **관련주:** 이수페타시스, 두산, 솔루스첨단소재, 덕산하이메탈, 티에스이, 엠케이전자, 한미반도체, 워트, 와이씨캠, 마이크로투나노, 퓨릿, 아이엠티, 디아이티, 디아이, 에스티아이, 레이저셀, 이오테크닉스, 프로텍, 원팩, SKC, 인텍플러스, 시그네틱스, 리노공업, 제우스, 큐알티, 제이티, 오로스테크놀로지, 샘씨엔에스

유니트론텍, 인천공항의 테슬라 되나...공항화물 자율운송 테스트

최근 반도체 전문기업 유니트론텍 (4,855원 ▲115 +2.43%)이 주목받는다. 1996년 설립된 유니트론텍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견조한 성장을 보여왔다. 마이크론, 마이크로칩 등 글로벌 반도체사들과 긴밀한 협력

이 바탕이 됐다. 주요 제품은 디램(DRAM), 낸드플래시 같은 메모리 반도체와 MCU(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 아날로그 IC 등 비메모리 반도체로 구성된다. 국내외 주요 자동차 기업들도 고객사로 확보했다.

[AI/ 로봇]

"당장 돈 안되고 성능향상 기대 못 미쳐도"...세계는 AI인프라 영끌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AI 인프라 확장을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알파벳 등의 주요 테크 기업들은 올해 AI 인프라 구축에 약 2090억달러(약 306조4567억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이는 2021년 대비 약 두 배 증가한 수치로, 주로 생성형 AI 기술 개발과 데이터센터 확장에 사용될 전망이다. 오픈AI는 최근 66억달러(약 9조6775억원)를 추가로 조달했으며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인공지능(AI) 기업 xAI는 60억달러(약 8조7978억원) 규모 추가 투자금을 유치했다. 아마존은 앤스로픽에 추가로 4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총투자 규모는 80억달러에 이른다. 각국도 AI 투자를 늘리고 있다.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반도체와 AI 산업 육성을 위해 2030년까지 총 10조엔(약 93조1490억원)의 공적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미국은 첨단 반도체와 AI 연구를 결합해 경제적·군사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AI 기술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 중이다. 대만은 AI 산업에 향후 3년간 매년 300억대만달러(약 1조3434억원)를 투입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레인보우로보틱스 최대주주로... 미래로봇 사업 속도

삼성전자는 지난해 868억원을 투자해 지분 14.7%를 갖고 있는 레인보우로보틱스에 대해 보유 중인 콜옵션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지분을 35.0%로 늘려 기존 2대 주주에서 최대 주주가 된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삼성전자의 연결재무제표상 자회사로 편입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 기술에 레인보우로보틱스의 로봇 기술을 접목해 지능형 첨단 휴머노이드 개발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이번에 신설한 미래로봇추진단은 휴머노이드를 포함한 미래로봇 기술 개발에 집중하는 조직으로, 향후 패러다임을 바꿀 미래로봇의 원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핵심 성장 동력화한다는 계획이다.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창업 멤버이자 카이스트 명예교수인 오준호 교수는 레인보우로보틱스 퇴임 후 삼성전자 고문 겸 미래로봇추진단장을 맡는다.

- **관련주: 에스피지, 알에스오토메이션, 삼익THK, 아진엑스텍, 인탑스, 이랜시스, 에스비비테크, 에스오에스랩, 우리넷**

2035년 '경차값 휴머노이드' 나온다...핵심부품 국산화 서둘러야

- ▶ 감속기: 에스피지, 에스비비테크, 웰콘시스템즈
- ▶ 모터: 케이엔알시스템, 로보티즈, 삼익THK, 하이젠알앤엠
- ▶ 엔코더: 알에스오토메이션
- ▶ 제어기: 아진엑스텍, 알에스오토메이션
- ▶ 그리퍼: 로보티크, 주강로보테크
- ▶ 이미지센서: 라온피플, 시냅스이미징
- ▶ 힘 센서: 로보티즈, 에어딘로보틱스
- ▶ 포음파센서: 하기소닉, 엘레파츠
- ▶ SW: 클로봇, 씨메스, 빅웨이브로보틱스
- ▶ 스마트팩토리: SFA, 고양, 포스코DX, LG CNS
- ▶ AI알고리즘: 네이버랩스, 마음AI, 원더풀플랫폼

젠슨 황, AI 다음 물결 밝힌다...8년만의 CES 기조연설

1월6일 오후 6시 30분(한국 시간 1월 7일 오전 11시 30분) CES 스테이지에서 엔비디아 창립자이자 CEO인 젠슨 황이 기조연설에 나선다. 전 세계는 무엇보다 젠슨 황의 입에서 어떤 'AI 비전'이 나오느냐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그는 AI 전도사 역할을 넘어 로봇과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 가상세계, 스마트 공장 등 다양한 이슈를 주제로 미래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젠슨 황의 로봇 분야에 대한 관심은 전 세계

인의 시선을 사로 잡고 있다.황 CEO는 지난 10월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레노버 테크 월드' 행사에서 "AI는 본질적으로 로봇"이라고 강조했다.

- **관련주: 유니퀘스트, 에스넷, 세코닉스, 알에스오토메이션, 원익홀딩스, 티로보틱스, 케이엔알시스템, 클로봇, TPC, 씨이랩**

올사년 새 전쟁터는 'AI로봇'...재계 총수들, '휴머노이드' 등 선점 사활

국내 주요 기업들, 특히 총수들이 로봇 분야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미래 제조 공장의 혁신을 넘어 '삶의 질'을 바꿀 핵심 기술로 꼽히기 때문이다. 생성형AI 등장으로 '대화'의 영역에서 혁신이 바람이 불었다면, 다음 세대로 일컬어지는 '피지컬AI' 시대가 도래하면 육체적인 분야에서 체감이 더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마켓앤드마켓이 전망한 서비스로봇 시장 규모는 2024년 471억달러(약 69조원)에서 2029년에는 986억5000만달러(145조2000억원)로, 연평균 15.9%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로봇에는 의료·배송로봇뿐 아니라 무인운반차량(AGV), 휴머노이드, 건설로봇 등 환경·공장·병원·공공 등 전문응용분야도 포함된다.

[IT/기술]

AI 넘어 세상 바꿀 기술...양자컴퓨터, 언 누구냐

10자년'이라는 시간 단위를 아시는지.10자년은 10셉틸리언(10의 24제곱·Septillion)년을 말한다. 인간 두 뇌로 가늠조차 안 되는 길고 긴 시간이다.이런 상상을 해보자. 현재 컴퓨터로 10자년은 걸려야 풀 수 있는 문제를 단 5분 만에 풀어내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된다면? 산업혁명이나 인터넷·모바일·AI 혁명을 뛰어넘은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어쩌면 인류는 상상 속 세상의 단초를 마련했다. 2024년 12월 11일 구글은 새로운 양자컴퓨터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이 컴퓨터를 활용하면 10자년이 필요한 문제를 5분에 풀어낼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인 프런티어는 물론, 5년 전 구글이 1만년 걸리는 문제를 몇 분 안에 풀 수 있다고 발표했던 성능보다 크게 빨라졌다.이처럼 양자컴퓨터는 초고속 연산이 가능해 '꿈의 컴퓨터'로 불린다. 슈퍼컴퓨터를 포함한 기존 컴퓨터는 0 또는 1 중 하나의 값만을 표현할 수 있는 비트(Bit)로 정보를 처리한다. 양자컴퓨터는 양자 상태에서 0과 1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큐비트(Qubit)로 연산한다. 큐비트를 활용하면 수많은 경우의 수를 동시에 표현하고 연산 횟수를 줄여 빠르게 최적의 답을 찾는다.인공지능(AI) 시장이 커질수록 막대한 계산량을 처리할 수 있는 양자컴퓨팅 기술 발전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미국 정책당국은 2024년 AI와 양자컴퓨터 분야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했다.

[가상 자산 / 가상 현실]

액션스퀘어 장현국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기업으로 대전환"

장 대표는 "액션스퀘어에 영입이 됐다기보다는, 사실상 새로운 창업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장 대표는 게임 개발사인 액션스퀘어를 블록체인 게임 및 플랫폼 기업으로 대폭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첫 출발은 이더리움과 연계된 새로운 레이어1(자체 네트워크 기반) 블록체인 메인넷이다.장 대표는 "1월 말까지 스위스 추크에 새로운 블록체인 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거점으로 삼아 2월에는 토큰 발행 및 ICO(가상자산공개) 또는 IEO(거래소를 통한 코인 판매)를 진행할 것"이라며 "3월에는 이와 연동한 첫 번째 게임을 출시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장 대표는 "2월 중 주주총회를 거쳐 회사명도 새롭게 변경할 계획"이라며 "김연준 공동대표는 기존에 액션스퀘어가 진행하는 게임사업을 총괄하고, 블록체인 사업은 내가 맡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다양한 국내외 게임을 블록체인 생태계 내에 끌어들이고, 자유롭게 게임 토큰을 거래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신년 인터뷰-장현국 액션스퀘어 대표②] "1월 재단 설립-2월 코인 발행-3월 게임 출시"

[신년 인터뷰-장현국 액션스퀘어 대표③] "커뮤니티-결제 필요없다...월렛-SDK에 집중"

일론 머스크 X 바뀐 프로필 뒤통스... 밌코인 900% 치솟았다

스위스, 중앙은행 '비트코인 비축 의무화' 되나... 국민투표 부친다

스위스 암호화폐 옹호론자들 10명 등으로 구성된 단체가 스위스 중앙은행(SNB)이 보유금의 일부를 금과 비트코인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시작했다. 중앙은행의 비트코인 보유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이번 이니셔티브는 스위스 연방 총리가 발표했다. 국민투표를 통과할 경우, SNB는 법에 따라 비트코인을 비축금에 포함하게 된다.

[IP/엔터]

'오징어 게임2' 첫 주 성적은 성공적... 92개국서 1위, 시청시간 5억 시간

"'오징어게임2', 최소 1조5천억원 이상 수익 기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 시즌2가 최소 1조5천억원 이상의 수익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 **관련주:**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아티스트스튜디오, 위지웍스튜디오, 쇼박스, 텍스터, 해태제과식품, 오뚜기

[BIO / 의료AI]

'국산 항암제 최초' 美·유럽 뚫은 유한양행 '렉라자'... 中·日 진출도 기대감

12월30일(현지시간) 존슨앤드존슨(J&J)은 자회사 이노베이티브 메디슨(구 안센)의 '리브리반트'(성분명 아미반타맵)와 유한양행의 렉라자 병용요법이 유럽집행위원회(EC)로부터 진행성 비소세포폐암(NSCLC) 중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EGFR) 변이(엑손19 결손변이 또는 엑손21 L858R 치환변이)를 가진 성인 환자 대상 1차 치료제로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병용요법은 앞서 같은 해 11월 유럽의약품청(EMA)의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로부터 허가 권고 의견을 받은 바 있다. 이번 허가로 유한양행은 이노베이티브 메디슨으로부터 3000만달러(약 440억원) 규모의 마일스톤(단계별 기술료)을 수령할 전망이다. 유럽 내 렉라자 매출에 따라 10% 이상의 로열티도 받게 된다.

'탈모약' 속도 내는 K바이오... '장기지속형' 주사제로 안전성 확보 노린다

상업화가 가장 빨리 될 것으로 기대되는 곳은 종근당이다. 종근당이 남성형 탈모치료제로 개발 중인 신약후보물질 'CKD-843'은 식약처로부터 임상 3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아 현재 환자 모집 중이다. CKD-843은 3개월에 1회 투여로 기존 경구제와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기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웅제약은 위더스제약, 인벤티지랩과 함께 탈모 치료 장기지속형 주사제 IVL3001을 개발 중이다. 이 주사제는 1개월에 1번 투약하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IVL3001은 호주에서 임상 1상을 1년간 진행해 탈모 치료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인체 검증 결과를 도출했다. 기존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최대 위험 요소인 초기과다방출 현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치료 효과와 안전성 측면에서 장점을 갖췄다는 평가다.

큐로셀 CAR-T 치료제 '림카토', 2025년 첫 국산 신약 후보 물망

업계에 따르면 큐로셀은 지난해 12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차세대 CAR-T 치료제 림카토 품목 허가를 신청했다. 임상시험 최종 보고서에 기반을 두고 혈액암의 일종인 재발성·불응성 거대B세포 림프종 적응증에 대해 승인을 요청했다. 림카토가 2025년에 첫 국산 신약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

유로는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대상 약제로 선정된 점이 꼽힌다. 이에 따라 림카토는 식약처의 품목 허가와 보건복지부의 급여 평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가 협상 절차가 동시에 진행된다.

FDA update

- HLB생명과학 510(k) Premarket Notification
 - 장치분류명: 주사기

[조선 / 해운]

조선업, 2025년도 성장세 순항 예고...관건은 '비용 관리'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2024 조선해양산업 동향 및 2025 전망'에 따르면, 2025년 국내 조선 3사의 매출은 평균 7~1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LNG선 수주잔량 확대 △해양플랜트 프로젝트 재개 △특수선 부문 신규 수주에 따른 것이다.메리츠증권은 2025년 국내 주요 조선사들의 수주 잔액이 2024년 3분기 말 대비 10.3% 증가한 1372억 달러(약 202조5072억원)약 전망하며, LNG 운반선의 수주가 그 주요 동력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에너지 마리타임 어소시에이츠(EMA)는 2024~2028년 글로벌 해양플랜트 발주 규모가 최대 1730억 달러(약 255조3480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해양플랜트 선주자인 삼성중공업은 공을 들이고 있는 모잠비크 프로젝트 이후에도 대형 해양플랜트 발주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성장세는 지속될 전망이다.미 의회조사국(CRS)은 FY2025 NDAA: Defense Industrial Base Policy를 통해 2030년까지 미 해군 MRO 예산은 연간 25% 이상 증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시장 규모는 올해 약 20조원에서 2030년 약 76조2000억원으로 3.8배 성장할 것으로 추산된다.한화오션은 미 해군 7함대 군수지원함과 급유함 정비를 수행하며, 필리 조선소를 인수해 MRO 사업을 확장 중이다. HD한국조선해양은 2024년 7월, 미 해군보급체계사령부와 함정정비협약(MSRA)을 체결해 향후 5년간 MRO 사업 참여 자격을 확보했다.

"요즘 세상에 일자리 넘치는 곳 있다니"...순풍 만난 K조선, 도크마다 빼곡

[정치]

[천지일보 신년여론조사]尹지지율 36.1%, 전 지역·연령대서 반등... 비상계엄 전 수준 회복

[신년특집 여론조사]국힘 35.7% 민주 40.4%...오차범위 내[에이스리서치]

'이재명' 30%대 새해 여론조사 모두 1위...홍준표·오세훈·한동훈 '각축'

동아일보가 여론조사 업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2월 28~29일 전국 유권자 1000명에게 차기 대통령감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을 물은 결과 이재명 대표가 39.5%로 1위를 차지했다.2~4위는 여당 소속인 홍준표 대구시장(8.9%), 오세훈 서울시장(8.7%), 한동훈 전 대표(8.0%)로 오차범위 내에서 경쟁했다.

이재명 35 홍준표 8 한동훈 6%...범진보 합치면 44, 범보수는 33% [신년 여론조사]

이준석 "오세훈·홍준표·안철수·한동훈 중...안철수랑 연대"

TV조선 유튜브 채널 '류병수의 강편치'에 출연한 이준석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 중 한 사람과 연대를 한다면 누구와 할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안철수 의원"이라고 답했다.그러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제일 가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안철수 의원은 지금까지 정치하면서 선악을 가르는 법조인 정치를 하지 않았다"며 "대신 미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다"고 부연했다.그는 "새로운 정치판을 짜기 위해 손을 맞잡아야 한다면 제가 먼저

안철수 의원한테 가서 지난 몇 년 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 잘못된 게 있으면 미안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다"라고 말했다.

- **안철수 관련주 : 안랩, 씨니전자, 까뮤이앤씨, 케이알엠, 브리지텍, 오픈베이스, 한국정보공학, 휴맥스, 휴맥스홀딩스 등**

[M&A / 주요 공시]

한울소재과학, 138억 규모 유증 납입 완료...양자사업 투자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주주서한 발송...23일 임시주총 지지 호소

[기타]

260,000,000,000원...'무안참사' 예약금 환불 행렬에 제주항공 '비상'

제주항공이 고객들에게 항공권을 판매하고 받은 선수금 규모는 약 2606억원으로, 이는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중 최대 규모다. 제주항공 집계에 따르면 지난 12월 29일부터 30일 오후 1시까지 제주항공 항공권 취소 건수는 약 6만8000건이다. 대부분의 취소 건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고가 벌어진 29일 오전 9시 이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항공 측은 현재 사고 수습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사고 이후 취소량은 평소보다 많은 수준"이라면서도 "신규 유입량도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 전일 시장 주도 종목 >

'전일 시장 주도 종목'은 거래일 기준 전(前)일 일어난 주요 종목과 그에 따른 이벤트를 다룬 콘텐츠입니다.

시장에서 주가를 움직이는 이벤트는 무엇이었는가를 알 수 있으며, 해당 이벤트가 다음 날까지 이어지는 강도인지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무엇보다 해당 종목이 '왜 올랐는지'를 아는 것은 주식의 시작입니다.

해당 종목을 오르게 한 이슈는 일회성이 아닙니다. 종목이 상폐되기 전날까지도 종목을 오르게 하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꼭 알아둬야 합니다.

차트가 좋을 때, 해당 종목의 이슈가 살아 있는 경우 80% 이상의 확률로 다시 시세를 주게 됩니다.

500억봉

150억봉

종목명	현재가	대비	...	L...	거래량	거래대금	시가총액	메모
< 로봇 >								
레인보우로	162,700	▲ 1,500	15.2	■	843,433	131,607	31,564	삼성전자, 최초의 휴머노이드 로봇 휴보를 만든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양팔로봇을 구입해 테스트
에스비비테크	18,000	▲ 2,200	13.9	■	208,102	3,600	1,111	삼성 웨어러블 로봇 '붓핏'의 감속기 공급사로 주목, 국산화 및 생산 수행.
에스피지	23,400	▲ 2,300	10.9	■	705,800	16,020	5,190	삼성전자 웨어러블 로봇 '붓핏'에 구동용 액추에이터 단독 공급 시작, 고토크·내구성 강조.
아진엑스텍	6,580	▲ 440	7.1	■	90,364	580	641	삼성중공업과 로봇 원천기술 개발, 삼성전자 반도체 설비에 모션제어시스템 공급.
로보스타	21,900	▲ 1,400	6.8	■	134,631	2,904	2,135	L6전자가 최대주주 / L6클로미 라인업 중 서브봇 등 일부의 위탁생산을 담당
알에스오트	14,000	▲ 3,230	29.9	■	5,241,529	68,343	1,302	로크웰오토메이션 협력사로 엔비디아 아이작 플랫폼에 제어기 공급.
유니켄스트	6,650	▲ 1,530	29.8	■	4,764,824	28,900	1,436	엔비디아 젯슨 모듈·개발자 키트 국내 공급 공식 발표.
세코닉스	5,440	▲ 190	3.6	■	1,680,781	9,428	805	2016년부터 엔비디아 차량 보드용 카메라 렌즈 공급.
씨메스	24,000	▲ 3,100	14.8	■	2,860,923	66,965	2,786	3D 비전 기반 시 로보틱스 기술로 자율제조·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추진.
이미지스	2,630	▲ 325	14.1	■	1,032,418	2,716	427	플렉시블 센서 기반 촉각 저장·재생 플랫폼 원천기술 개발 완료.
피엔에스미	10,700	▲ 1,040	10.7	■	765,721	7,940	692	전신 재활로봇 워크봇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 FDA 및 유럽 CE-MDR 인증 획득.
원익홀딩스	2,550	▲ 235	10.1	■	11,514,052	29,263	1,970	원익로보틱스 알레그로 핸드, 엔비디아 디엑스트림 프로젝트 로봇 팔 채택.
케이엔알시	6,800	▲ 570	9.1	■	191,277	1,278	739	보스턴 다이내믹스·유럽 IIT에 유럽 액추에이터 공급.
클로봇	8,910	▲ 590	7.0	■	22,059,662	194,624	2,188	보스턴다이내믹스 국내 특정 판권 확보 및 자율주행 솔루션 상용화.
대동기어	13,150	▲ 510	4.0	■	2,233,148	30,212	1,182	대동, AI 기반 자율 농작업 로봇 개발 중으로 2025년부터 단계적 출시 예정.
< 양자컴퓨터 / 양자암호 >								
큐에스아이	10,370	▲ 2,390	29.9	■	3,272,463	32,731	961	양자컴퓨팅용 MMIC 개발 중 샘플 일부 납품 완료 및 문의 증가.
한솔소재	6,380	▲ 890	16.2	■	471,925	2,869	932	DV-QKD 기반 QKD·키관리시스템·Q-IPSec 상용 시스템 개발 성공.
코위버	8,020	▲ 900	12.6	■	9,513,901	75,948	786	차세대 보안 기술 QKD·PQC 기반 보안 솔루션 및 장치 개발·상용화 진행 중.
아이윈플러	1,144	▲ 105	10.1	■	6,298,737	7,209	374	초소형 칩 패키징 기술로 QRNG 칩 양자보안 사업 진행, 2020년부터 휴대폰에 양산 공급 중.
우리넷	8,750	▲ 120	1.3	■	5,374,158	47,244	941	KT POTN 장비 공급 및 양자 통신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 참여.
파인텍	1,026	▲ 203	24.6	■	15,204,719	15,258	446	양자컴퓨터 제조기업 SDT에 전략 투자 및 파트너십 구축 발표.
케이씨에스	14,350	▲ 1,740	13.8	■	15,661,647	226,087	1,722	QKEY7 칩 국정원 인증 목표, 2025-2026년 드론 등 통신장비 탑재 예상, SKT와 공동개발 진행.
마톤	5,730	▲ 240	4.3	■	13,509,316	81,398	1,331	ML-DSA 기반 양자내성암호화 사실인증서 솔루션 개발로 시장 공략.
< 정치 >								
오리엔트바	1,547	▲ 357	30.0	■	45,467,640	66,500	1,834	이재명 관련주
오리엔트정	6,630	▲ 810	13.9	■	31,159,427	202,236	2,105	이재명 관련주
이스타코	1,899	▲ 174	10.0	■	6,553,595	12,284	814	이재명 관련주
나우IB	1,161	▲ 86	8.0	■	2,689,203	3,040	1,102	이재명 관련주
오파스넷	8,440	▲ 910	12.0	■	1,503,489	12,141	1,101	한동훈 관련주
노을	2,975	▲ 255	9.3	■	2,989,627	8,717	1,099	한동훈 관련주
대상홀딩스	10,180	▲ 370	3.7	■	818,625	8,257	3,686	한동훈 관련주
< BIO / 의료시 >								
셀루메드	2,540	▲ 583	29.7	■	1,865,668	4,544	1,309	주사형 피부미식제 '셀루덤 젠' 개발 완료, 내년 초 상용화 준비.
퀀타메트릭	6,460	▲ 950	17.2	■	3,015,800	20,056	1,068	최대주주 100억 유상증자 참여로 dRAST·μCIA R&D 강화 계획.
한솔바이오	38,650	▲ 5,100	15.2	■	2,158,447	81,306	20,191	IMVT-1402 임상3상 예정으로 상업적 경쟁력 기대.
올릭스	19,260	▲ 2,240	13.1	■	515,506	9,634	3,555	비만치료제 DLX702A 기술수출 계약 내년 초 목표.
샤페론	3,500	▲ 345	10.9	■	4,726,444	16,706	1,055	2025년 BFC 컨퍼런스 초청, 아토피 치료제 '누겔' 임상2b 성과 발표 및 기술이전 논의 예정.
젬백스	14,800	▲ 1,220	8.9	■	360,689	5,147	5,919	GV1001, PSP 2a 임상 데이터 긍정적 평가, 글로벌 3상 파스트트랙 가능성 준비 중.
네이처셀	21,500	▲ 1,600	8.0	■	1,736,555	37,653	13,837	퇴행성관절염 치료제 '조인트시스템' 미국 FDA RMAT 지정 받아 신속허가 추진.
알테오젠	309,500	▲ 8,500	2.8	■	809,120	251,998	165,022	히알루로니다제 개발 성공. 2025년 Keytruda SC 실적 반영 본격화.
< 개별주 >								
에코마이	24,400	▲ 5,600	29.7	■	605,952	13,961	2,410	국내 1호 탄소배출권 기업으로 온실가스 감축 사업과 탄소배출권 발급 전문.
캠트로스	4,885	▲ 435	9.7	■	6,047,808	30,444	1,297	CO2를 메틸렌 카보네이트로 전환하는 CCU 기술 개발, 친환경 공정으로 주목.
그린케미칼	6,830	▲ 520	8.2	■	5,841,720	41,420	1,639	CCU 기술 상용화 및 매출 발생, 다수 기업·정부기관과 협업 진행 중.
에머레인	13,300	▲ 710	5.6	■	747,308	9,907	1,087	국내 유일 기계 분리막 기술 보유, 롯데케미칼 실증 성공, 대기업과 CCUS 공동사업 논의 중.
제노코	14,550	▲ 1,480	11.3	■	1,550,235	23,668	1,091	드론 기반 레이저 조류 퇴치 장치 특허 보유, 항공기 조류 충돌 예방 효과.
에머부산	2,300	▲ 70	3.1	■	13,377,350	33,840	2,683	A321-200 등 에어버스 여객기로 기단을 구성
제주항공	7,500	▲ 710	8.6	■	7,170,965	52,841	6,048	매경그룹 계열 저가항공사(LCC), 2005년 정기항공운송사업면허 취득, 국내외 여객운송업 영위.
루미르	10,370	▲ 700	7.2	■	3,741,043	38,729	1,838	2030년까지 18개 위성 발사 계획, 1·2호기 스페이스X와 발사 계약 완료.
지에스미	3,270	▲ 220	7.2	■	1,230,930	3,981	981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며 수요가에 도시가스를 공급 및 서비스를 제공

< 로봇 >

●레인보우로보틱스 (+15.23%)(834K) / 에스비비테크 (+13.92%)(204K) / 에스피지 (+10.90%)(698K) / 아진엑스텍 (+7.17%)(89K) / 로보스타 (+6.83%)(133K)

"미·중 독주에도 기회는 있다"...추격하는 K-휴머노이드

2030년 집집마다 '로봇 집사' 들인다...내년 휴머노이드 산업 빅뱅

AI(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맞물려 '휴머노이드 로봇(Humanoid Robot)'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다가오는 2025년은 휴머노이드 산업의 원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휴머노이드 시장규모는 연평균 50.2% 성장을 거듭하며 2030년에는 138억달러(약 20조원), 2035년엔 380억달러(약 55조원) 규모로 성장이 예상된다.모건스탠리는 휴머노이드가 가정용으로 본격 보급되는 시점을 2030년으로 예측했다. 이후 꾸준히 수요가 늘어 2040년 800만대, 2050년 6300만대가 보급될 것으로 봤다.

●알에스오토메이션 (+29.99%)(5193K)

FT "엔비디아, 새해 상반기 휴머노이드 로봇용 컴퓨터 출시"

[특징주]알에스오토메이션, 엔비디아 상반기 '젯슨 토르' 출시 예정...핵심부품 부각↑

알에스오토메이션은 엔비디아의 아이작(Isaac) 로봇 공학 플랫폼 파트너사인 로크웰오토메이션의 협력사로서 로봇모션제어기를 공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알에스오토메이션은 로봇 모션 제어와 에너지 제어 장치를 제품군으로 보유한 국내 유일 기업으로 전해졌다.

●유니퀘스트 (+29.88%)(4753K)

[특징주] 유니퀘스트, 엔비디아 AI 로봇으로 '챗GPT 혁명' 잇는다...'핵심 솔루션' 젯슨 모듈 국내 독점 공급 '주목'

파이낸셜타임스는 현지시간으로 29일 엔비디아가 내년 상반기 중 휴머노이드 로봇용 소형 컴퓨터의 최신 버전 '젯슨 토르'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유니퀘스트는 지난해 10월 엣지 AI와 로봇틱스를 위한 엔비디아 젯슨 모듈과 개발자 키트 전 라인업을 국내에 공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엔비디아 젯슨은 백만 명 이상의 개발자가 사용하는 AI 엣지 컴퓨팅 플랫폼이다. 지능형 머신 제조업체와 AI 개발자는 사전 훈련된 AI 모델,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 젯슨 라인업 전반에 걸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 지원을 통해 임베디드와 엣지 디바이스에서 고품질 소프트웨어 정의 기능을 구축, 배포할 수 있다.

●세코닉스 (+3.62%)(1645K)

[특징주] 세코닉스, 강세...美엔비디아 로봇 사업 진출에 카메라 렌즈 공급사 부각

세코닉스는 2016년부터 엔비디아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엔비디아의 차량 통제 보드에 탑재되는 카메라 렌즈를 공급했다.

●씨메스 (+14.83%)(2814K)

(24.10.25)경영 협력·SI자격으로 씨메스에 지분 투자한 '쿠팡·SKT·GS리테일' 눈길

씨메스는 로봇의 눈에 해당하는 3D 비전 센서를 개발하는 기업이다. 현재의 산업용 로봇이 정형화된 움직임을 반복하는 형태라면, 씨메스는 비정형화된 움직임이 가능하도록 솔루션을 제공한다. 특히 SK텔레콤이 2대 주주로 있으며 쿠팡, GS리테일 등도 전략적투자자(SI)로 합류한 바 있어 대기업군에서 지분투자를 한 업체로 알려졌다.주목할 점은 SK텔레콤, GS리테일, 쿠팡 등은 재무적투자자(FI)가 아닌 전략적투자자(SI)라는 점이다.업계 관계자는 "재무적투자자 FI(Financial Investor)는 기업의 사업 운영이나 경영권에는 관심없이 오로지 수익 환수만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를 의미한다"라며 "반면 전략적투자자 SI(Stragedy Investor)는 투자한 기업의 경영 참여까지 열어두고 장기적인 관심에서 기업의 성장을 꾀하기 위해 투자하는 장기적 투자자"라고 전했다.

(24.11.13)[특징주]씨메스, 머스크 "휴머노이드 로봇 100억대 존재할 것"...美 진출 실탄 확보

씨메스는 로봇산업기술개발사업,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등을 추진한다고 전날 밝혔다. 씨메스는 3차원 비전 기반 AI 로봇틱스 기술로 ▲AI 자율제조 관련 로봇 지능화 및 자동화 기술 ▲휴머노이드 로봇 및 실증 개발 등에 참여한다.

●이미지스 (+14.10%)(1019K)

(23.09.21)"휴머노이드 로봇 만들어라"...삼성이 탐낼 기술, 촉각 원천기술 '이미지스' 주목

(24.05.20)[특징주]이미지스, 엔비디아·아마존 '촉감' AI 휴머노이드 협력...원천기술 부각↑

이미지스는 산업통상자원부 국책과제로 '플렉시블 센서 기반 촉감 저장 재생 플랫폼 원천기술 개발'에 대해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주관기업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이미지스가 공동으로 원천기술을 개발을 완료했다.

●피앤에스미캐닉스 (+10.77%)(754K)

(24.12.17)[특징주]피앤에스미캐닉스, 재활로봇 전방 시장 성장 수혜..."고성장 기대"

김학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현재 국내에서는 약 2500개의 가망고객(재활 의료기관) 중 6% 가량이 보행 재활로봇을 도입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워크봇(Walkbot) 1대의 평균 가격은 3억~5억원으로 추정되며, 이를 고려한 국내 잠재 시장 규모는 1조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말했다.그는 "2022년부터 로봇 재활 훈련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며 치료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향후 의료기관 내 도입이 더욱 가속화될 전

망"이라며 "피앤에스미캐닉스, 엔젤로보틱스, 큐렉소 등 국내 3사의 국내향 보행재활로봇 매출액 합계는 2021년 37억원에서 작년 82억원으로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24.07.24)'IPO 흥행' 피앤에스미캐닉스, 세계 최초 전신 재활로봇 선보인다

피앤에스미캐닉스는 로봇 설계 및 제조 전문회사로 주요 제품인 하지 재활로봇 '워크봇(Walkbot)'을 전 세계 12개국에 판매하고 있다. 피앤에스미캐닉스의 기술력은 이미 글로벌에서 인정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국내 인증과 더불어 국제표준 ISO 13485,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 총 14개 국가 23종의 인증을 획득했다. 지난 5월에는 인증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유럽 CE MDR 인증을 획득해 유럽 진출 발판을 마련했다.

●원익홀딩스 (+10.15%)(11078K)

[특징주] 원익홀딩스, 엔비디아 휴머노이드 로봇 경쟁 본격화...알레그로 핸드 채택↑

원익홀딩스의 자회사인 원익로보틱스가 개발한 알레그로 핸드가 엔비디아의 디엑스트림 프로젝트 로봇 팔로 채택된 사실이 부각되며 영향을 받는 것으로 풀이된다.

●케이엔알시스템 (+9.15%)(190K)

현대차 엔비디아 손잡고 AI 휴머노이드 키운다, 테슬라 '옵티머스'에 도전장

현대차그룹이 2021년 6월 인수한 보스턴다이내믹스도 엔비디아의 로봇 학습 소프트웨어 주요 고객사 가운데 하나다. 보스턴다이내믹스는 4족 보행 로봇 '스팟'이 시각 정보를 받아들이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연산에 엔비디아의 젯슨 자비어 NX모듈을 활용하고 있다.

(24.04.23)[특징주]케이엔알시스템, 보스턴다이내믹스 13조 IPO 시동...납품 이력 부각↑

케이엔알시스템의 로봇 제품들은 유압을 동력원으로 하는 유압 로봇시스템이다. 또한 케이엔알시스템은 '아틀라스(Atlas)'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유명한 미국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유압 로터리액추에이터를 납품한 바 있으며, 세계적인 로봇 기술 연구소인 유럽 IIT(Istituto Italiano di Tecnologia)에 자체 개발한 유압 액추에이터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클로봇 (+7.09%)(21784K)

(24.11.11)[특징주] 클로봇, 보스턴다이내믹스 '로봇개' 美 트럼프 경호 임무 담당 소식에...로봇개 독점판권 보유↑

클로봇은 서비스 국내 최초 범용 자율주행 솔루션과 로봇관제 솔루션을 상용화한데 이어 글로벌 로봇업체 보스턴다이내믹스의 국내 독점 판권을 획득했다고 알려졌다.

●대동기어 (+4.03%)(2212K)

[특징주] 대동기어, 휴머노이드 AI 기술 적용 '무인 자율농업' 로봇 생산소식에 '강세'

대동은 농기계와 로봇이 자율 무인 농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온디바이스 AI 플랫폼을 개발해 오는 2025년부터 AI 시스템 기반의 지능화, 무인화 기능을 탑재한 농용과 옥외 작업용 산업 로봇을 단계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대동기어는 농기계 생산에 필요한 소재와 부품을 공급한다. 대동이 로봇에 적용한 VLA 기술은 인간과 실시간 소통을 기반으로 주변 환경과 필요 작업을 스스로 인지해 인공지능이 알아서 기능을 수행하는 기술로 테슬라의 자율주행 차량이나 오픈AI 사의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적용되는 기술이다.

< 양자컴퓨터 / 양자암호 >

●큐에스아이 (+29.95%)(3272K) / 한울소재과학 (+16.21%)(466K) / 코위버 (+12.64%)(9425K) / 아이원플러스 (+10.11%)(6219K) / 우리넷 (+1.39%)(5310K)

양자컴퓨터-양자통신 기술... 현실로 성큼 다가온 '혁신'

상폐 경고 받았던 양자컴株 실스크 한달새 2100% 폭등

(24.12.19)[특징주] 큐에스아이, 양자 컴퓨팅 세계 99% 점유 스웨덴 로우노이즈와 MMIC 공동개발..."고객사 러브콜 쇄도"

큐에스아이가 양자컴퓨팅에 사용되는 극저온 저잡음 증폭기 모듈 분야에서 99% 세계 점유율 독점기업 스웨덴 로우노이즈팩토리오와 국책과제를 통해 마이크로파모놀리식집적회로(MMIC)를 개발 중이다. 이어 큐에스아이는 국책과제를 통해 개발중인 MMIC의 샘플 일부를 고객사에 납품했다. 큐에스아이 측은

"새로 개발 중인 MMIC의 경우 양자컴퓨터 업체 등 잠재고객사에서 관련 문의가 오고 있다"며 "샘플단계의 납품이 몇몇 기관과 업체에 공급됐다"고 전했다.

● **파인텍 (+24.67%)(14975K)**

(24.10.14)파인텍, 양자표준기술 전문기업 SDT에 전략적 투자 및 파트너십 체결

파인텍이 양자표준기술 전문기업 '에스디티(SDT, 대표 윤지원)'에 전략적 투자와 함께 파트너십을 구축한다고 14일 밝혔다.SDT는 양자컴퓨터 제조에 필요한 양자 제어장비(얽힘, 중첩을 제어하는 필수장비) 상용화와 함께 초전도체, 중성원자, 이온 트랩, 실리콘 스핀, 다이아몬드 NV 센터(질소공동센터, nitrogen-vacancy center) 등 다양한 물리 플랫폼을 아우르는 호환성과 기술 노하우는 물론 양자 컴퓨팅 글로벌 생태계 내 풍부한 파트너십, 그리고 기술 전반의 광범위한 지식재산권(IP)들을 보유한 국내 유일의 양자컴퓨터 제조 기업이다.

● **케이씨에스 (+13.80%)(15568K)**

[특징주] 양자컴퓨터株 상승세 계속... 케이씨에스, 1년 내 최고가

(23.03.09)[특징주]케이씨에스, 세계최초 양자암호 '선점 자신'...AI까지 '두마리 토끼'

SK텔레콤은 SK스퀘어의 자회사인 IDQ, 국내 토종 보안기업 케이씨에스와 함께 개발한 양자난수생성기(QRNG) 칩과 암호통신기능의 반도체를 하나로 합친 '양자암호원칩(Quantum Crypto chip)'을 출시했다.'양자암호원칩'은 IoT(사물인터넷) 기반의 다양한 제품과 장치에 강력한 보안 기능을 제공하는 초경량, 저전력 칩이다. 양자 기반 암호키 생성 기술과 함께 물리적 복제방지 기술(PUF) 등 강력한 보안 기술이 적용됐다.

● **아톤 (+4.37%)(12552K)**

아톤, 美 '양자내성 솔루션' 22배 폭등... 양자내성 솔루션 상용화

아톤은 세계 최초의 양자내성암호화 표준인 '모듈격자 기반의 디지털서명알고리즘(ML-DSA)'을 적용한 신규 사설인증서 솔루션을 개발하고 시장 선점에 나선다.

< 정치 >

● **이재명 관련주: 오리엔트바이오 (+30.00%)(45431K), 오리엔트정공 (+13.92%)(30815K) / 이스타코 (+10.09%)(6507K) / 나우IB (+8.00%)(2643K)**

[특징주] 이재명 테마주 '들썩'...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영향

차기 대선 야권이 이겨야 60.4% vs 집권 여당 정권 연장 32.3%

조사결과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에 동의하는 사람은 60.4%,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에 동의한 사람은 32.3%였다. 대부분 지역에서 전체 여론조사 추이와 같이 정권교체 여론이 컸다.

● **한동훈 관련주: 오파스넷 (+12.08%)(1462K) / 노을 (+9.38%)(2948K) / 대상홀딩스 (+3.77%)(793K)**

한동훈 "고맙습니다"...당 대표 사퇴 후 온라인 첫 등장

다시 움직이는 한동훈, 대선 출마 결심했으나

한 여권 관계자는 "당이 새로 재편되더라도 한 전 대표의 당내 지지층은 두터운 상황"이라며 "숨죽이던 한 전 대표가 과거 당 대표 후보로 출마했을 때처럼 상황을 지켜보다가 전면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BIO / 의료AI >

● **셀루메드 (+29.79%)(1861K)**

셀루메드, 혁신적 주사제형 피부이식재 '셀루덤 젠' 개발 완료

셀루메드가 주사제형 피부이식재인 무세포동종진피(Acellular Dermal Matrix, ADM) 신제품 '셀루덤 젠(CELLUDERM GEN)' 개발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회사는 본격적인 상업화를 위해 내년 초부터 생산 시설 점검과 시제품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셀루덤 젠(CELLUDERM GEN)'은 유방재건 등의 수술에 주로 사용되는 '셀루덤 필(CELLUDERM FILL)'과는 다르게 입자가 작아 퇴행성 관절염 통증 완화, 관절 주사 등 간단한 시술에 사용이 가능해 상업화 시 즉시 매출에 기여할 것으로 회사측은 기대하고 있다.

● **퀀타매트릭스 (+17.24%)(2996K)**

퀀타매트릭스, 최대주주 에즈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

퀀타매트릭스는 최대주주 에즈라 자선신탁(Ezrah Charitable Trust, 에즈라)의 100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 계획을 30일 밝혔다. 이번 건은 지난 24일 공시된 전환사채 투자자의 전환가액 조정(re-fixing, 리픽싱) 제거 합의에 이은 신규 자본확충 건이다. 회사측은 신규 자금 확보로 향후 'dRAST'(신속 항균제 감수성 검사장비) 사업 확대, 차세대 패혈증 진단 시장의 게임체인저로 부각되고 있는 'μCIA' 연구 개발이 더욱 탄력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올바이오파마 (+15.20%)(2136K)

신한투자 "한올바이오파마 자가면역질환치료제 가치 증명할 것, 적응증 확장 임상 기대"

엄민용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30일 한올바이오파마 목표주가 6만2천 원, 투자의견 매수(BUY)를 유지했다. 엄 연구원은 "파트너사 이뮤노반트가 내년부터 IMVT-1402 4-5개 적응증에 대해 미국 임상3상을 개시할 것"이라며 "동종 계열 최초 적응증인 그레이브스병도 유효성을 확인했다"고 바라봤다. 아제넥스는 비브가르트로 3가지 적응증을 승인받아 시가총액 약 50조 원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IMVT-1402는 아제넥스가 확보하는데 실패한 적응증을 획득한다면 상업적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이뮤노반트는 2025년 1분기 IMVT-1401의 중증근무력증(MG) 임상3상 주요 결과(타라인) 발표와 만성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성신경병증(CIDP) 임상2b상 중간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 임상결과를 토대로 IMVT-1402의 임상 결과를 유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엄 연구원은 "내년 IMVT-1402가 그레이브스병으로 동종계열 내 최초 약물임을 하반기 임상3상을 통해 확인해 상업적 가치를 처음 증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동종계열 최초로 충분한 임상적 유효성 증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릭스 (+13.16%)(513K)

(24.12.20)올릭스 "내년 초 비만치료제 기술수출, 법차순 리스크 문제없다"

"비만치료제 OLX702A의 기술수출 계약을 늦어도 내년 초 달성하겠습니다."이동기 올릭스 대표는 20일 인터뷰에서 "당초 연내 OLX702A의 기술수출 계약 성공을 목표로 했지만 시기가 조금 지연됐다"며 "글로벌 톱 빅파마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졌을 뿐이며 현재 마무리 짓는 단계"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샤페론 (+10.94%)(4685K)

(24.12.23)샤페론, BFC 글로벌 헬스케어 컨퍼런스 발표자로 선정..."기술이전 논의"

샤페론은 오는 2025년 1월 12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는 'BFC 글로벌 헬스케어 컨퍼런스'(이하 BFC 컨퍼런스)에 초청받아 핵심 파이프라인의 임상 성과에 대해 발표한다고 23일 밝혔다. 샤페론은 이번 컨퍼런스에 미국에서 진행 중인 아토피 치료제 '누겔(NuGel)'의 임상2b 파트1에 대한 임상결과를 중심으로 주요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술이전 논의를 본격화한다. BFC 컨퍼런스는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하는 글로벌 행사로, 미국, 유럽, 아시아 등의 바이오·헬스케어 산업 동향을 파악하고, 기업 간 라이선스 아웃과 협력 기회를 논의하는 자리다.

●젬백스 (+8.98%)(359K)

이지영 서울의대 신경과 교수 "GV1001 PSP 2a 임상 데이터 상당히 고무적"

GV1001 2a 임상시험은 일단 데이터를 보면 상당히 고무적이다. 지속적으로 투약을 받고 싶어 하는 환자들이 있을 정도로 체감을 느끼는 환자도 있을 정도이다. 그다음 순서로는 실제 치료 시 사용할 용량들을 고려한 실질적인 2b 단계의 임상시험을 한가지가 아닌 여러 형태로 진행해 보아야 할 것이다. 글로벌 3상 임상시험은 미국의 시스템에서 볼 때 PSP는 희귀질환이기 때문에 2a 임상시험 데이터를 가지고도 허가 전 단계 임상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때문에 북미와 유럽의 연구자들과 임상시험 관계자들은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

●네이처셀 (+8.04%)(1558K)

네이처셀, 줄기세포 동결보존기술 국내 특허 등록

(24.11.01)네이처셀 주가 불기둥 만든 RMAT..."최종허가·상용화와 상관 無"

FDA 심사관 출신 이장익 서울대 약학대 교수는 "RMAT 지정에 따른 혜택은 분명하다. 기간을 단축하고, 임상 개발 과정에서 FDA 컨설팅을 받을 수 있어 신약개발이 상당히 수월해질 수 있다"면서도 "최종 허

가와는 다른 개념이다. 예를 들어 서울대에 입학했다고 해서 졸업을 한다는 보장은 없다. 제대로 공부도 안하고 놀기만 한다면 서울대 졸업이 어려운 것이다. 다만 서울대에 입학했다면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것이고, 졸업을 못하는 경우가 소수에 불과하다. 조인트시스템이 RMAT 지정을 받은 것은 FDA가 유효성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알테오젠 (+2.82%)(800K)

[리포트 브리핑]알테오젠, '히알루로니다제의 확장성에 주목' Not Rated - 삼성증권

삼성증권에서 알테오젠에 대해 '알테오젠, 글로벌 시장에서 두번째로 히알루로니다제 개발 성공. 2025년 예상되는 Hybrozyme 성과. 이제 본격적인 실적 성장 가능 시기: Keytruda SC FDA 승인 및 판매 마일스톤은 2025년 하반기부터 반영. 일정 수준의 매출 도달 이후에는 판매 로열티 유입 가능성. Enhertu SC 및 바이오시밀러 SC도 2027년이후부터 출시되면서 실적 성장에 기여 가능.'라고 분석했다.

< 개별주 >

●에코아이 (+29.79%)(604K) / 켐트로스 (+9.78%)(5998K) / 그린케미칼 (+8.24%)(5802K) / 에어레인 (+5.64%)(736K)

[다음주 기획재정부 및 경제부처 일정]

12월31일(화) -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업 탄소경쟁력 견인한다...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확정(11:00) (23.11.06)'국내 1호 탄소배출권 기업' 에코아이, 코스닥시장 출사표..."i-KOC 사실상 독점"

국내 1호 탄소배출권 기업이 되는 에코아이는 탄소배출권 분야에 특화해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영위하는 환경 전문기업이다. 아울러 에코아이는 해외 외부사업 인증실적(i-KOC) 점유율 88.3%를 차지하며 국내 최대를 자랑한다. 19개 국가 기관을 비롯해 국내 기업에선 △삼성전자 △한화에너지 △고려아연 △LG화학 △두산중공업 △GS칼텍스 등 12개사와 글로벌 정유사인 'Shell'사와도 제휴를 맺고 있다. 상장을 통해 유입된 자금을 기존 사업 확장과 폐냉매 회수, 바이오차 등 신규 사업 개발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에코아이는 2017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시작했으며, 3년 후인 2020년부터 탄소배출권을 발급받아 실적 성장이 큰 폭으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는 쿡스토브 보급, LED 교체, PNG 누출방지, 맹그로브 조림과 같은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제노코 (+11.32%)(1539K)

[특징주] 제노코, '제주항공 참사' 부른 조류사고 방지 시급...레이저 퇴치 장치 특허 '부각'

제노코는 드론 탑재형 레이저 조류 퇴치 장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해당 기술은 소음과 조명 장치가 부착된 비행체를 원격 PC로 제어해 특정 비행 경로를 따라 운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 기술은 강한 빛을 이용해 조류를 퇴치하는 방식으로, 항공기 안전 운항에 위협이 되는 조류 충돌 사고 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에어부산 (+3.14%)(13282K) / 제주항공 (-8.65%)(7128K)

참사에 제주항공.여행사 주가 급락했는데...12% 급등한 에어부산, 이유는?

[제주항공 무안참사] 에어부산, 주가 급등 배경엔 '에어버스'로만 기단 구성

국토교통부 항공기 등록 정보에 따르면 현재 B737-800 기종을 101대 운용 중이다. 제주항공이 39대로 가장 많고, ▲티웨이항공 27대 ▲진에어 19대 ▲이스타항공 10대 ▲에어인천 4대 ▲대한항공 2대 등이다. 에어부산은 A321-200 등 에어버스 여객기로 기단을 구성하고 있다.

●루미르 (+7.24%)(3615K)

루미르 '루미르X(LumirX)', 스페이스X와 1호기 이어 2호기 발사계약 체결

루미르 측은 "내년 1분기 루미르X 1호기 발사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18개의 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1호기와 2호기는 스페이스X와 발사 계약을 마쳤다"고 강조했다.

●지에스이 (+7.21%)(1212K)

[특징주]천연가스 가격 상승 압력에..천연가스 선물 ETN 강세

'러시아 가스관' 계약 종료 앞둔 동유럽...에너지 전쟁 시작되나

우크라, 1월 1일 러시아 가스밸브 잠근다...천연가스 가격 오르나

< 장 후 시간 외 주요 사항 >

장 후 시간 외 시장에서 움직인 종목을 보면서 당일 주식 시장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톤 (+8.90%)(954K) / 엑스게이트 (+1.54%)(95K)

2025년 증시 주인공 'AI' 아니다...'양자컴퓨터'가 뜬다

"양자과학 퀀텀점프의 해"...韓·美·中 기술전쟁 격화

미국은 일찍이 2018년 세계 최초로 양자 육성법 '국가 양자 이니셔티브법'을 제정했다. 올해 장거리 양자 인터넷 핵심기술인 양자중계기를 새로 개발하는 등 신기술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기술패권 경쟁에 맞춰 2019~2023년 12억 달러(1조 8000억 원)의 예산을 확정했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재집권으로 관련 지원에 다시 힘이 실릴 전망이다. 12월 양자컴퓨터 상용화 걸림돌인 오류정정 문제를 최초로 해결한 양자칩 '윌로'를 공개한 구글은 향후 100만 큐비트 연산 성능과 10조 분의 1 오류율 도달을 목표로 고도화를 추진 중이다. IBM도 최근 신형 양자칩 양자칩 '퀀텀 헤론'을 선보였다.중국도 새해에 양자기술 분야에서 퀀텀 점프에 도전한다. 앞서 2016년 세계 최초의 양자통신위성인 '묵자호'를 쏘아올린 데 이어 새해 신형 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다. 최근 구글 윌로 공개에 뒤이어 동급이라고 주장하는 양자칩 '주총즈 3.0'와 504큐비트 양자컴퓨터 '텐엔-504'를 선보이는 등 미국과의 기술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양자컴퓨터를 의학 연구에 활용하는 자국 내 최초의 연구소 '허페이 양자컴퓨팅·데이터 의학연구소'가 출범하는 등 상용화 준비도 서두르고 있다. 유럽연합(EU)도 관련 예산으로 2027년까지 미국과 맞먹는 10억 유로(1조 5000억 원)를 배정했다.

●아이씨티케이 (+4.39%)(334K)

[인사이트] 아이씨티케이, 양자컴퓨팅 시대에 필요한 양자암호보안 기업

●엠에프씨 (+6.52%)(292K)

(24.12.30)엠에프씨, 200조 시장 API 세계 유일 대체제 없다...경쟁사 '全無' 독점 구조

엠에프씨는 원료의약품/소재 개발 제조 전문 회사로, 유기합성 및 대량생산 기술, 신규결정화 기술 등 다양한 기반기술을 활용하여 의약품의 활성성분인 원료의약품(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 API)을 비롯하여, 이를 생산하기 위한 핵심출발소재(Key Starting Material, KSM), 중간소재(Pharmaceutical Ingredient, PI) 등을 전문적으로 개발 및 생산하고 있다.

●네이처셀 (+6.05%)(178K)

네이처셀, 줄기세포 동결보존기술 국내 특허 등록

(24.11.01)네이처셀 주가 불기둥 만든 RMAT..."최종허가·상용화와 상관 無"

FDA 심사관 출신 이장익 서울대 약학대 교수는 "RMAT 지정에 따른 혜택은 분명하다. 기간을 단축하고, 임상 개발 과정에서 FDA 컨설팅을 받을 수 있어 신약개발이 상당히 수월해질 수 있다"면서도 "최종 허가와는 다른 개념이다. 예를 들어 서울대에 입학했다고 해서 졸업을 한다는 보장은 없다. 제대로 공부도 안하고 놀기만 한다면 서울대 졸업이 어려운 것이다. 다만 서울대에 입학했다면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것이고, 졸업을 못하는 경우가 소수에 불과하다. 조인트시스템이 RMAT 지정을 받은 것은 FDA가 유효성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이노스메드 (-9.94%)(29K)

[시간외Y] 드래곤플라이, 카이노스메드 '하한가'

카이노스메드의 유상증자 납입일은 30일에서 내년 1월17일로, 신주의 배당기산일은 올해 1월1일에서 내년 1월1일로, 상장 예정일은 내년 1월13일에서 1월31일로 일정이 연기됐다.

●드래곤플라이 (-10.00%)(101K)

[시간외Y] 드래곤플라이, 카이노스메드 '하한가'

드래곤플라이의 유상증자 납입일은 30일에서 내년 2월10일로, 신주의 배당기산일은 올해 1월1일에서 내년 1월1일로, 신주권교부예정일은 내년 1월16일에서 2월25일로, 신주 상장 예정일은 내년 1월16일에서 2월25일로 각각 밀렸다.

<주간 일정>

2025년 1월 2일 목요일

일본 증시 휴장

美, '반도체·AI·양자' 對中 투자 통제

삼성전자, '갤럭시 북5 프로(Pro)' 출시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추가상장(유상증자)

동원산업 무상증자 기준일

싸이토젠, 3,995,726주(17.28%) 보호예수 해제

2025년 1월 3일 금요일

일본 증시 휴장

미국) 12월 ISM 제조업 PMI ★

자율운행선박법 시행령 시행

산업부-국방부, 국방분야 3D프린팅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준비기일

씨엑스아이, 30,084,312주(10.01%) 보호예수 해제

2025년 1월 4일 토요일

에이피헬스케어, 47,945,206주(23.88%) 보호예수 해제

2025년 1월 5일 일요일

CES 2025 미디어 데이(~6일)★

골든글로브 시상식

동일스틸릭스, 1,128,668주(5.42%) 보호예수 해제

아티스트유나이티드, 5,965,460주(44.63%) 보호예수 해제

이스트아시아홀딩스, 30,000,000주(6.95%) 보호예수 해제

크레오에스지, 17,000,000주(8.8%) 보호예수 해제

2025년 1월 6일 월요일

CES 2025 미디어 데이(~6일)★

클라우드웍스 거래정지(주식분할)

빅텐츠 거래정지(주식분할)

태성 유상증자 기준일

<테마·개별 일정 Check>

△ 기존 일정

▲ 추가·수정된 일정

△CES 2025 / 25.01.07~10

삼성, 경험 확장...LG, 공감지능, 다음달 CES서 'AI 홈' 맞대결

젠슨 황, AI 다음 물결 밝힌다...8년만의 CES 기조연설

1월6일 오후 6시 30분(한국 시간 1월 7일 오전 11시 30분) CES 스테이지에서 엔비디아 창립자이자 CEO 인 젠슨 황이 기조연설에 나선다.

△JPM 2025 / 25.01.13~16

JP모간 콘퍼런스 내달 개최...K바이오 CEO 총출동한다

△美 제47대 대통령 취임식 / 25.01.20

[트럼프 재집권] 내년 1월 공식 취임까지 어떤 절차 밟나

△美빅테크 방산 컨소시엄 발표 예정 / 24.01 中

"빅테크 공룡들, 결국 여기까지 손뻐나"...미국 국방사업 도전장 냈다는데

미 방산업체 팰런티어와 안두릴이 AI 스타트업 10여 곳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르면 내년 1월 컨소시엄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컨소시엄에는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와 챗 GPT 개발사 오픈AI, 자율해상선박(ASV) 제조업체 서로닉, AI 데이터업체 스케일AI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 / 25.02 中

이재명 대선가도 탄력...'사법리스크' 변수

공직선거법 270조는 1심은 기소 후 6개월 안에,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6·3·3 법칙인데, 법대로라면 공직선거법 2심은 내년 2월, 최종 판결은 5월까지 선고돼야 합니다.

△전 세계 물리학회 '양자 과학기술의 해' 선포 예정 / 25.02 中

"양자과학 퀀텀점프의 해"...韓·美·中 기술전쟁 격화

유네스코와 한국물리학회를 포함한 전 세계 물리학회들이 2월 '양자 과학기술의 해' 선포식을 가질 예정이다. 앞서 유엔이 새해를 '양자과학기술의 해'로 지정한 데 이어 민간 차원의 정책 제안과 국제 협력 등을 위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전해졌다.

△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발표 예정 / ~25.03

HLB, 명운을 바꿀 한 해가 온다

HLB는 현재 미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표적항암제 '리보세라닙'과 면역항암제 '캠렐리주맙' 병용요법의 간암 1차 치료제 허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 9월 재심사를 신청했고 허가 기한인 내년 3월 이전까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 차트상 관심주 >

[상승봉] 500 & 150억 봉

-(0일차) 오리엔트바이오 알에스오토메이션 레인보우로보틱스 씨메스 오리엔트정공 코위버 큐에스아이 유니퀘스트 파인텍 퀴타매트릭스 샤페론 원익홀딩스

-(1일차) 케이씨에스 코위버 삼현 스마트레이더시스템 제주은행 에이엘티

-(2일차) 쓸리드

[5~8일선] 티케이케미칼 SBS

[15일선] 대원전선 와이씨 남선알미늄 에이릭스

[33~45선] 현대엘리베이

[120선]

[바닥] 디티앤씨 극동유화 NE능률 오리콤 SFA반도체 신원종합개발 CJ씨푸드

[급락]

[단기과열 예고] 코위버 큐에스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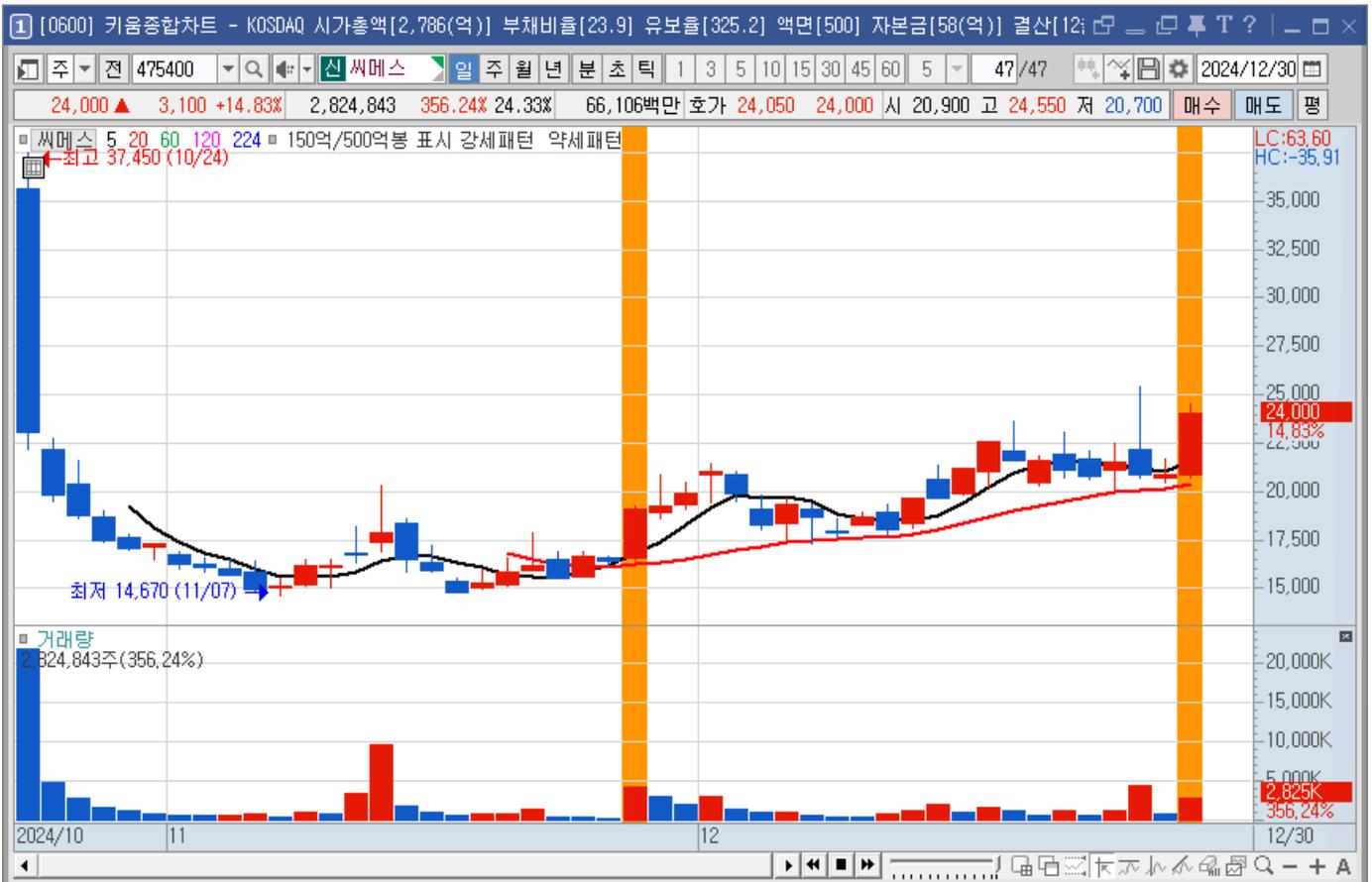
[단기과열] 티케이케미칼

[투자경고] SBS 에스티큐브 엑스게이트 아티스트스튜디오 제닉 액션스퀘어 웹케시 이스타코 بانک웨어글로벌 디젠스 윌비스 한국첨단소재 위세아이텍 메디앙스 휴맥스홀딩스 한국정밀기계

[투자위험] 오리엔트정공

< 0일차 차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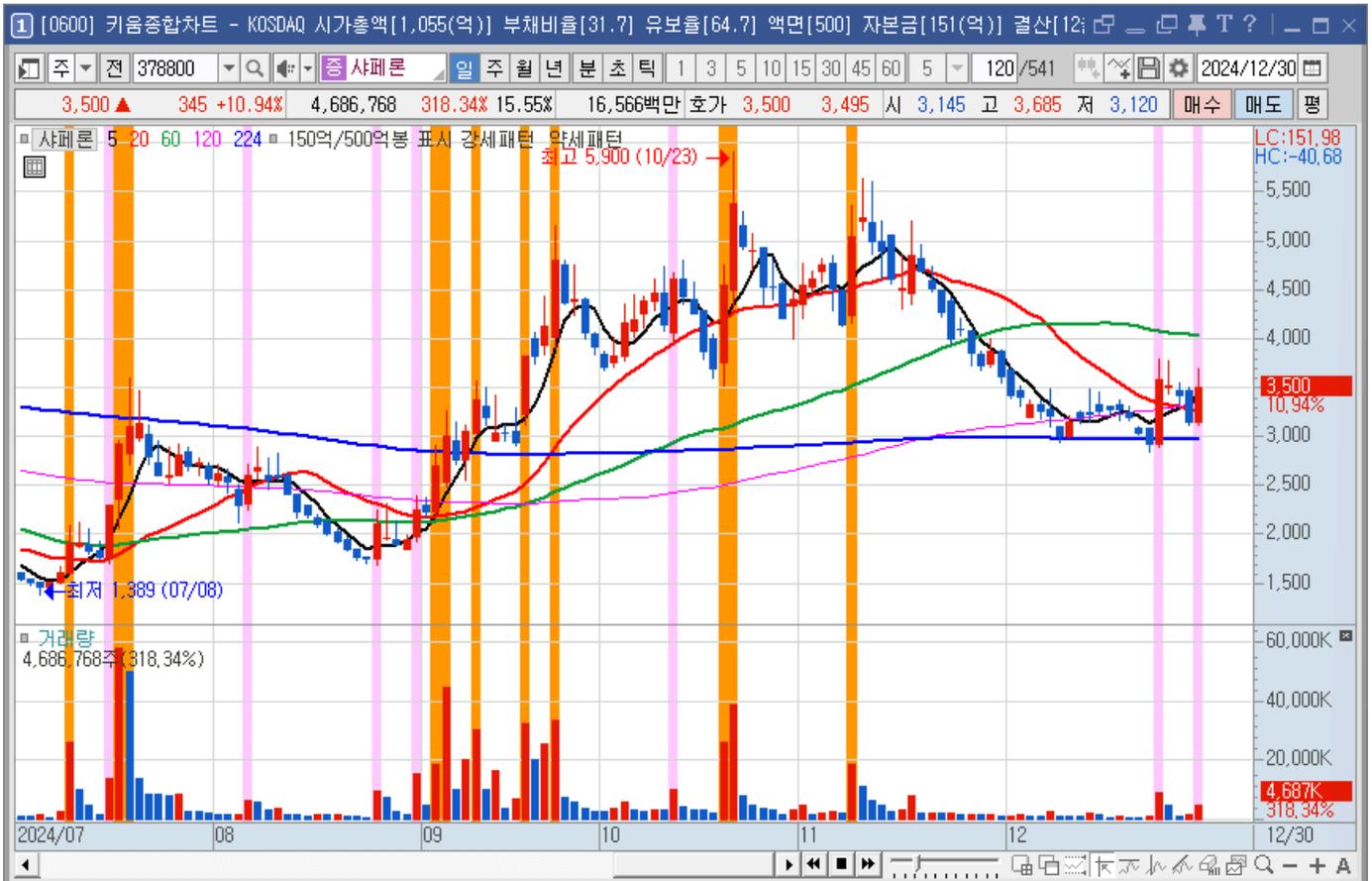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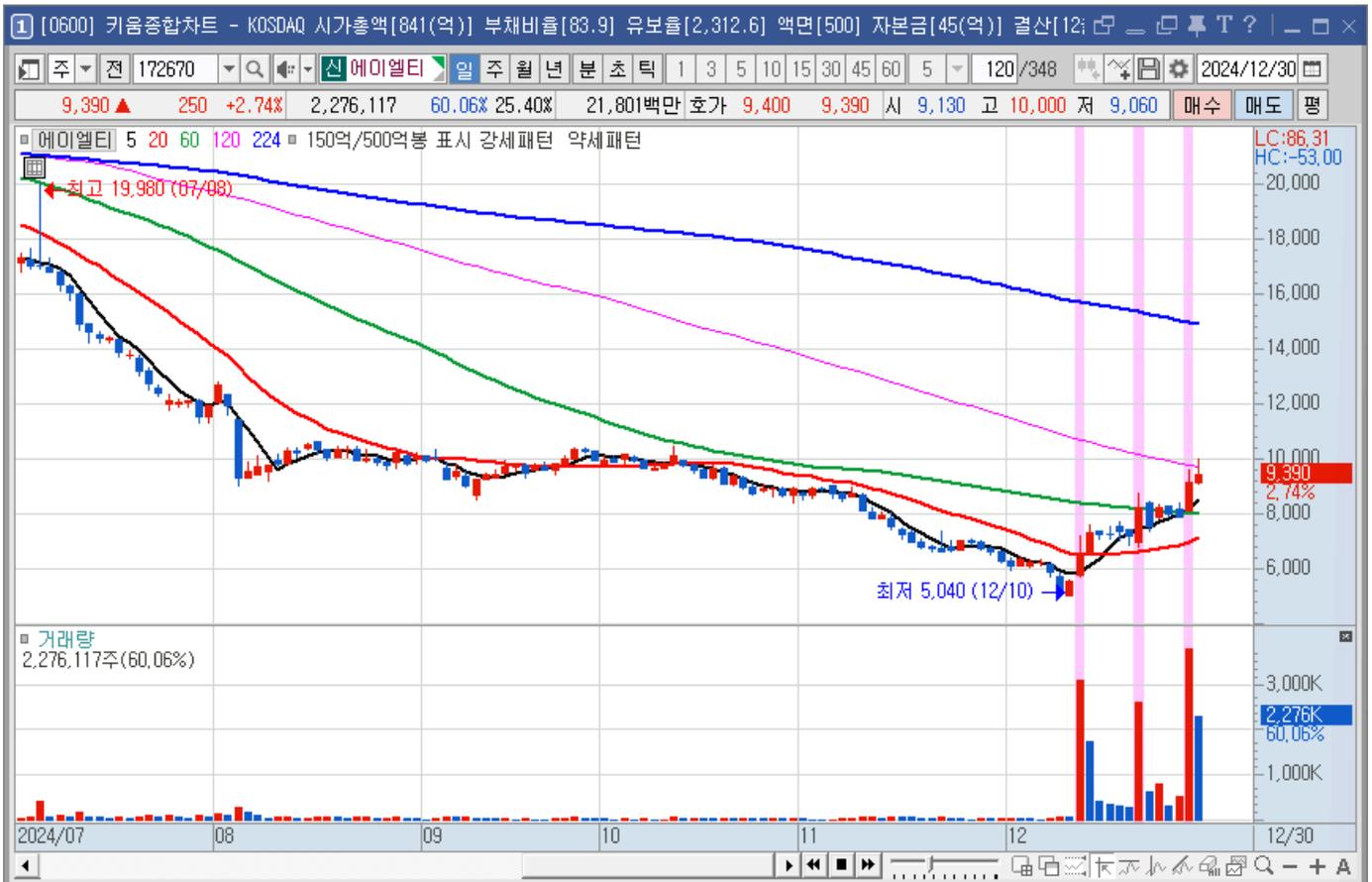




< 1일차 차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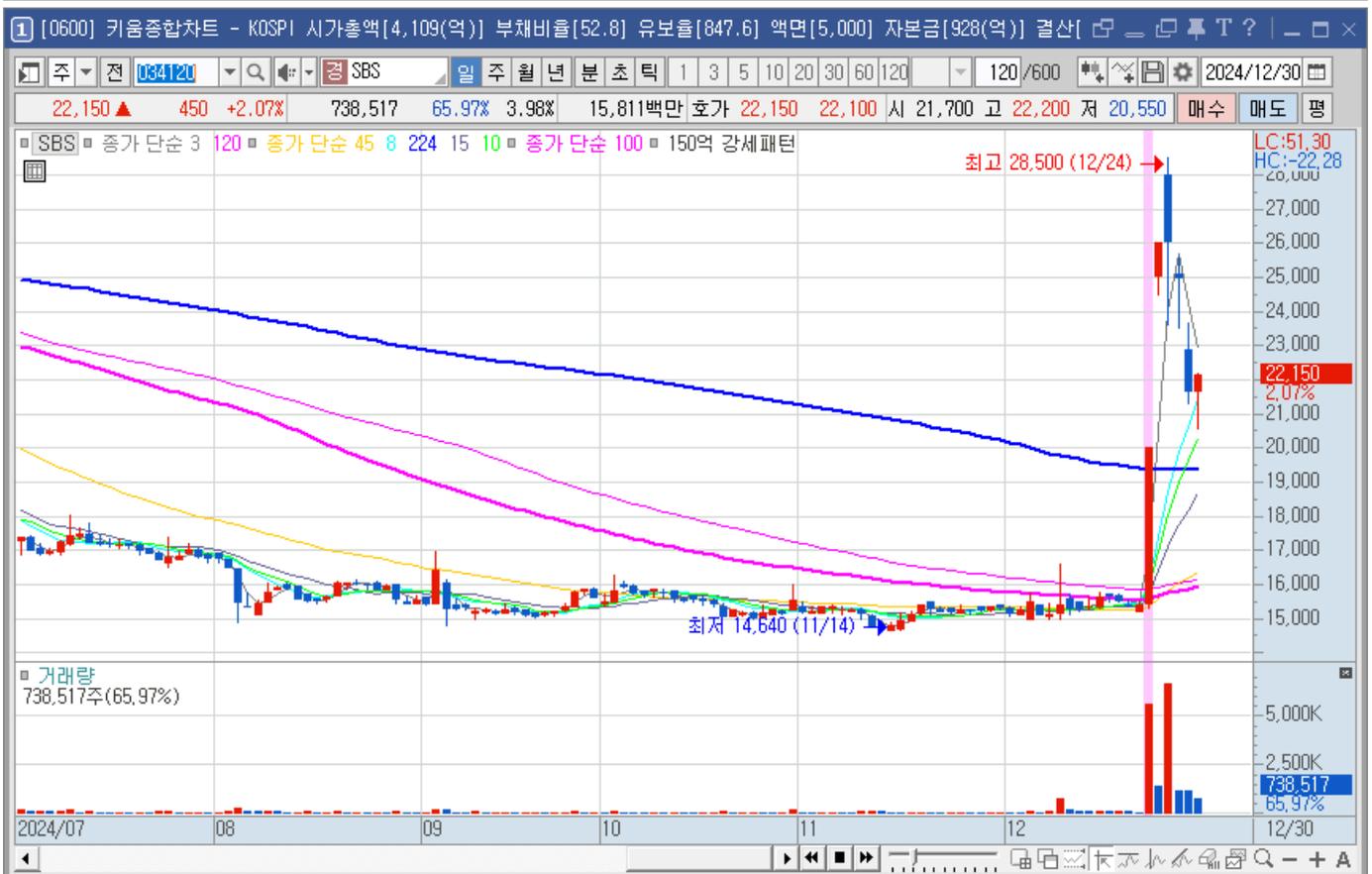




< 2일차 차트 >



< 8일선 줌 차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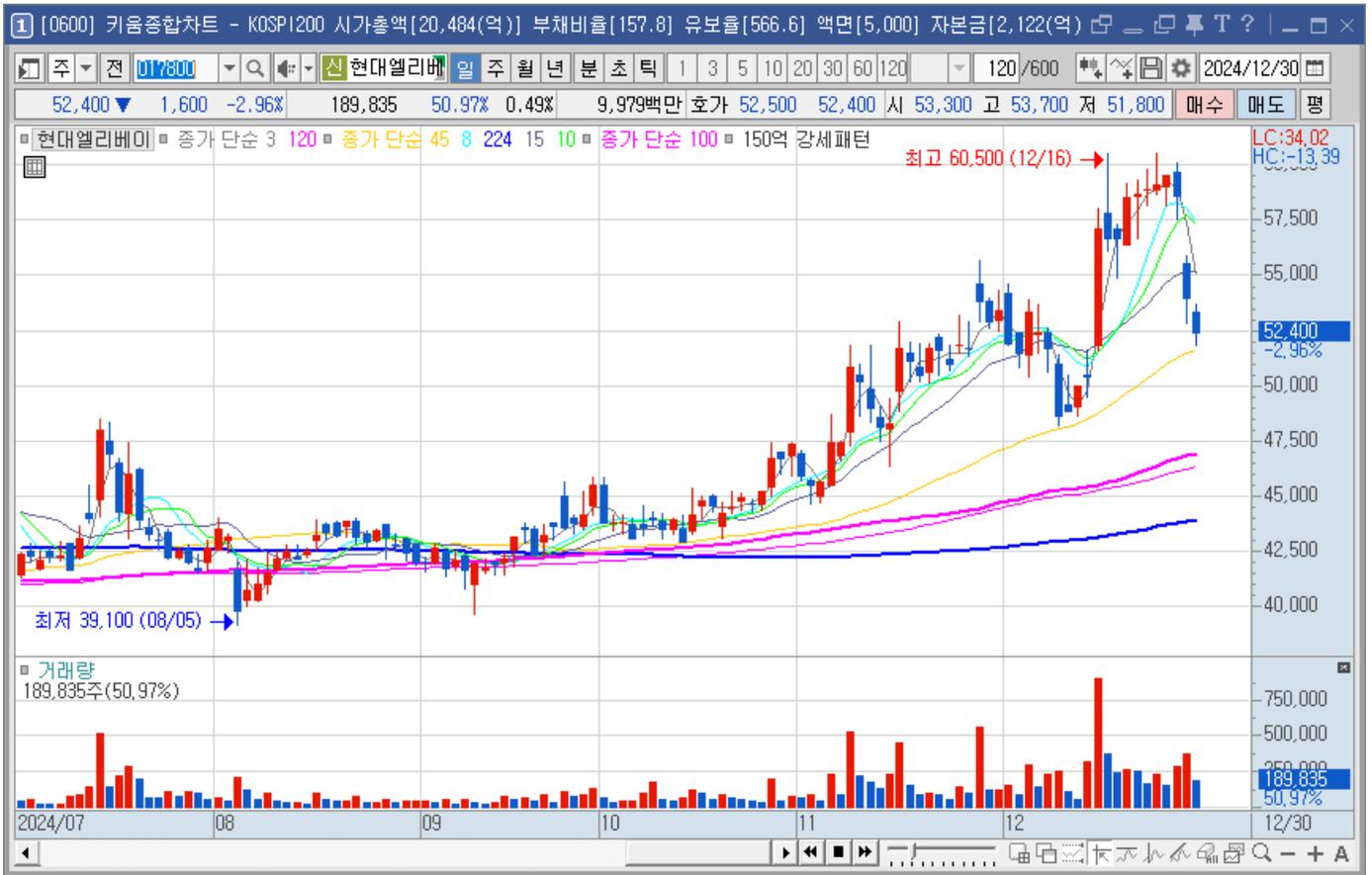


< 15선 줌 차트 >





< 33 ~ 45선 차트 >



<120선 차트 >

...

< 경제 일반 >

휴장일

1월 2일 일본 증시 휴장

1월 3일 일본 증시 휴장

코스피, 나흘 연속 내려 2,400선 내줘...코스닥은 상승(종합)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286억원, 1천222억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렸다. 외국인은 장 초반 순매수세를 보였나 장중 매도 우위로 돌아섰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2.22포인트(1.83%) 오른 678.19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천371억원, 159억원 순매수했으며 개인은 2천488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이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거래대금은 각각 5조2천710억원, 4조7천700억원으로 집계됐다.

nomad:

마지막 데일리포인트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마지막날 투자는 잘 안해요.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님.

환율 증가 1,472.5원...연말 기준 외환위기 후 27년 만에 최고

국고채 금리, 단기물 중심 일제 하락...3년물 2.597%(종합)

이차전지·로봇주 사모으는 외국인

지난 30일 코스닥시장에서 2373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같은 날 코스닥에서 2563억원어치를 판 개인과 159억원어치를 산 기관과 대조적이다.종목별로 보면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집중되기 시작한 지난해 12월 23일부터 현재까지 에코프로비엠에 581억5400만원에 달하는 순매수 대금이 몰렸다. 이는 해당 기간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 1위 기록이다. 에코프로비엠 외에도 엔캠(303억9000만원), 에코프로(205억3500만원) 등 이차전지 업종에 적극적인 매수세가 나타났다.외국인은 이차전지 업종 외 레인보우로보틱스(431억4100만원), HLB(268억2600만원), 신성델타테크(131억200만원), 에스티팜(109억900만원) 등에 100억원이 넘는 투자를 이어갔다.

nomad:

이차전지에 대한 조롱이 극에 달했죠.
금양 까는 거 봐도 알 수 있음.

증권가, 코스피 1월 전망 2290~2650... "과매도권 진입"

KB증권은 1월 코스피지수 밴드(예상 범위)로 2290~2650을 제시했다. 상상인증권은 2300~2500을, 삼성증권은 2350~2650을 코스피지수 1월 밴드로 내다봤다.코스피지수가 지난해 하반기 6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저평가 구간에 들어간 영향이 크다. 코스피지수는 12개월 선행 PER 기준 8.2배 수준이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저점인 8.4배를 밑돌고 있다. 코스피지수의 12개월 선행 PBR은 0.81배로 바닥권으로 꼽히는 0.9배에 못 미치고 있다.

"새해 증시 변곡점은 트럼프 취임일... 1기 때와 다를 것"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일은 오는 20일이다. 앞서 두 달간 '트럼프 트레이딩'이 진행됐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리한 지난해 11월 5일 이후 미국 주식시장은 2.3% 올랐지만,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주식시장은 4.2% 빠졌다.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미국 비중은 65.7%까지 불어났다.한화투자증권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에 초고율 관세를 부과해 위안화 약세가 깊어지면, 신흥국 시장 전반의 변동성이 커질 수는 있다고 봤다. 그럼에도 올해 1분기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리기 좋은 시점이라고 평가했다.박승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식은 주변 여건이 좋을 때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질 게 없을 때 사야 한다"며 "국내 주식 실적이 하향되는 구간이어서 모멘텀(상승 동력)을 따라다니기보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밸류 플레이(저평가 종목 투자)가 유효할 것"이라고 했다.

외환당국, 3분기 '환율 안정'에 2억달러 사들였다

한국은행이 31일 공개한 '2024년 3분기 외환당국 순거래'에 따르면 외환 당국은 지난 3분기 시장 안정을 위해 외환시장에서 1억9천200만달러를 순매입했다.외환 순거래액은 지난 1분기(-18억1천500만달러)와 2분기(-57억9천600만달러) 내내 순매도를 기록했다가 3분기 순매수를 나타냈다.4분기에는 환율이 장중 1,486.7원까지 급등한 점을 고려하면 외환 순거래액도 순매도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계엄 이후 환율 전망 뒤집은 IB들..."원화값 내년에도 계속 하락"

한국 경제의 각종 펀더멘털을 반영하는 원화 가치가 새해 들어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기존 전망을 뒤집어 내년 3분기까지 달러당 원화값이 계속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원화값 더 떨어지면 성장 동력 사라진다...시중은행 비상 걸린 이유는

급락한 원화 값으로 올해 은행의 보통주자본(CET1) 비율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CET1 비율은 금융사의 손실 흡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위기에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원화 값이 현재 추세대로 하락하면 금융지주가 밸류업 구상을 발표할 때 공약했던 13% 수준을 밑돌 수 있고, 인수·합병(M&A) 등 미래 성장동력 발굴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韓 연간 수출 6838억불 '역대 최대'... 효자 반도체가 주도

글로벌 경기 침체와 비상계엄 사태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수출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수출도 지난해 역대 최대를 경신하며 전체 수출을 견인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은 6838억 달러로 지난해 대비 8.2%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수출이 역대 12월 중 최고치(614억 달러)를 기록해 15개월 연속 지난해 대비 증가하는 '수출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수출 증가율도 5개월 만에 반등해 6.6%를 기록했다.

트럼프 복귀 앞 역대 최대 대미흑자... 무역수지 관리 필요성 커져(종합)

지난해 한국의 대미 수출과 무역수지 흑자가 각각 1천278억달러, 557억달러로 모두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024년 대미 수출을 이끈 일등 공신은 자동차다. 전년 대비 8% 증가한 342억달러를 기록해 전체 대미 수출의 26.8%를 담당했다. 자동차는 한국의 전체 대미 흑자의 약 60%를 차지한다.

연초라 돈은 풀어야 되는데... 적자국채 100조 위기

싸늘하게 식은 내수 경기를 회복할 방안으로 새해 추가경정예산 수립 논의가 불붙고 있지만, 적자 국채 발행량이 급증해 건전재정 기초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적자 국채 발행량은 작년보다 5조원 늘어난 86조7000억원이다. 2020년 이후 8차례 추경에서 한 번을 제외하고 모두 11조원을 넘었다. 이에 따라 새해 추경을 실행할 경우 적자 국채 규모가 코로나19 시기였던 100조원에 근접할 가능성이 있다.

nomad:

다 됐고, 한은이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찝끔찝끔 금리인하로는 대응이 안됨.

연초효과 기대 열어진 회사채 시장...1분기 26조 '만기폭탄' 불안

1일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3년 만기 신용등급 'AA-'급 회사채와 3년 만기 국고채의 채권시가평가수익률 차이는 68.4bp(1bp=0.01%포인트)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탄핵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지자 비상계엄 직후 59.2bp(12월 4일)였던 신용 스프레드가 18거래일 만에 9.2bp나 확대된 것이다. 신용 스프레드 확대는 채권 투자자들이 안전한 국고채 투자를 늘리고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고 위험한 회사채 투자를 기피해 국고채 대비 회사채 가격이 더 하락했다는 의미다.

5대 시중은행 작년 가계대출 42조원 늘었다

5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가계대출이 42조원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해 12월 30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34조3995억원을 기록했다.

2023년 말(692조4094억원)보다 41조9901억원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세는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이 주도했다.

"韓경제, 정치에 발목" 44% ... "경기 좋아질 것" 13% 그쳐

연령대별로는 경제중추인 40·50대에서 비관적인 전망이 가장 많았다. 40대의 63%, 50대의 64%가 각각 올해 경기가 작년보다 나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20대(18~29세)와 30대에서는 각각 42%와 56%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올해 소비자물가 2.3% 상승...연말 물가 불안 '꿈틀'(종합)

올해 소비자물가가 2%대 초중반 올라 작년보다 상승세가 둔화하는 흐름을 나타냈다.

다만 과일과 채소값이 높았던 영향으로 농산물 물가 상승률은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의 마지막 달 물가상승률은 1% 후반으로 나타났다. 4개월 연속 1%대를 유지했지만 상승 폭은 전월보다 확대됐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물가 지수는 114.18(2020년=100)로 작년보다 2.3% 올랐다.

주요 주가 지수

코스피지수	2,399.49	2,429.75	2,390.44	-5.28	-0.22%	30/12	🕒
코스피 50	2,213.32	2,245.74	2,210.30	-10.67	-0.48%	30/12	🕒
코스닥	678.19	679.68	661.92	+12.22	+1.83%	30/12	🕒
다우존스	42,544.22	42,779.69	42,421.29	-29.51	-0.07%	05:59:59	🕒
S&P 500	5,881.60	5,929.70	5,868.90	-25.30	-0.43%	05:59:59	🕒
나스닥종합지수	19,310.79	19,563.72	19,283.41	-176.00	-0.90%	05:59:59	🕒
러셀 2000	2,230.16	2,250.40	2,224.53	+2.38	+0.11%	31/12	🕒
CBOE VIX	17.35	17.35	17.35	0.00	0.00%	19:30:17	🕒
캐나다 S&P/TSX	24,727.94	24,767.80	24,651.48	+107.35	+0.44%	06:01:29	🕒
브라질 보베스파	120,283	121,050	120,158	+14	+0.01%	31/12	🕒
S&P/BMV IPC	49,513.27	49,663.63	48,835.61	+675.55	+1.38%	05:59:59	🕒
DAX	19,909.14	19,978.00	19,882.67	-75.18	-0.38%	31/12	🕒
영국 FTSE	8,173.02	8,180.38	8,096.65	+52.01	+0.64%	01:35:59	🕒
프랑스 CAC	7,380.74	7,381.26	7,287.14	+67.18	+0.92%	01:35:59	🕒
유로 스톡스 50	4,869.28	4,904.08	4,862.16	-29.60	-0.60%	30/12	🕒
네덜란드 AEX	878.63	879.13	870.60	+6.83	+0.78%	01:35:59	🕒
스페인 IBEX	11,595.00	11,613.40	11,525.40	+58.20	+0.50%	01:35:59	🕒
이탈리아 FTSE MIB	34,186.18	34,339.73	33,966.30	+25.21	+0.07%	31/12	🕒

실시간 선물 가격

🇰🇷 금	2025년 2월	2,639.30	2,639.30	2,639.30	-0.05	0.00%	14:00:17	🕒
🇰🇷 금/달러		2,624.56	2,627.57	2,602.70	+18.61	+0.71%	07:00:04	🕒
🇺🇸 은	2025년 3월	29.290	29.290	29.290	-0.003	-0.01%	14:00:17	🕒
🇺🇸 구리	2025년 3월	4.0235	4.0235	4.0235	-0.0002	0.00%	14:00:17	🕒
🇺🇸 백금	2025년 4월	910.40	910.40	910.40	-0.10	-0.01%	14:00:17	🕒
🇺🇸 팔라듐	2025년 3월	909.50	909.50	909.50	+0.50	+0.06%	14:00:17	🕒
🇺🇸 WTI유	2025년 2월	71.72	71.87	71.72	-0.14	-0.19%	07:37:17	🕒
🇺🇸 브렌트유	2025년 3월	74.42	74.43	74.42	+0.85	+1.16%	04:59:59	🕒
🇺🇸 천연가스	2025년 2월	3.633	3.637	3.632	-0.303	-7.70%	07:37:13	🕒
🇺🇸 난방유	2025년 3월	2.2611	2.2611	2.2611	-0.0578	-2.49%	07:37:35	🕒
🇺🇸 가솔린 RBOB	2025년 3월	2.0137	2.0142	1.9780	+0.0052	+0.26%	06:58:58	🕒
🇺🇸 런던 가스 오일	2025년 1월	697.00	700.25	689.50	+4.75	+0.69%	04:58:59	🕒
🇺🇸 알루미늄		2,556.50	2,564.00	2,540.50	+2.50	+0.10%	03:55:01	🕒
🇺🇸 아연		2,990.00	3,045.50	2,970.50	-31.00	-1.03%	03:58:52	🕒
🇺🇸 니켈		15,876.00	16,273.50	15,803.50	-300.00	-1.85%	14/12	🕒
🇺🇸 구리		8,789.00	8,947.50	8,761.00	-152.00	-1.70%	03:58:52	🕒
🇺🇸 미국 소맥	2025년 3월	551.00	551.00	551.00	0.00	0.00%	14:00:17	🕒
🇺🇸 현미	2025년 3월	14.025	14.010	13.945	-0.105	-0.78%	12:58:59	🕒
🇺🇸 미국 옥수수	2025년 3월	458.75	458.75	458.75	0.00	0.00%	14:00:17	🕒
🇺🇸 미국 대두	2025년 1월	998.25	998.25	998.25	0.00	0.00%	14:00:17	🕒
🇺🇸 미국 대두유	2025년 3월	40.43	40.43	40.43	0.00	0.00%	14:00:17	🕒

< 경제/인구 구조 변화 >

너무 빨리 늙은 韓경제... "남은 골든타임 15년"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 한국의 만 65세 이상 인구는 1024만 4550명으로 전체 인구의 20%를 돌파하며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초고령사회가 됐다. 2017년 고령사회가 된 지 7년 만이다. 독일(36년)이나 프랑스(39년)는 물론 일본(10년)보다도 빠른 속도다. 유엔은 65세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nomad:

정말 골든타임이 15년입니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워요. 할아버지가 스타트업을 하기는 여건이 안 좋지 않습니까.

새해부터 2차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절반 깎아준다

내년 공무원 보수 3% 인상...9급 초봉 처음으로 200만원 넘어

< 부동산 >

피할 수 없는 초양극화...분양이든 경매든 '뚝뚝한 한 채' 노릴때 [2025 주목할 만한 부동산 투자처]

새해 부동산 투자환경은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서울 강남권이나 수도권 주요 입지에 알짜 실거주 매물이 주요 투자처로 꼽혔다. 신축 중심의 가격경쟁력을 노리는 선별매수가 주요한 전략이다. 가격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뚝뚝한 한 채가 중요하다는 조언이다. 거래 시기는 상반기를 주목했다. 정치적인 변화 가능성에 정책 변수가 전망되면서 양도세와 취득세 등 세금규제와 대출규제, 금리인하 등이 주요 고려사항으로 언급됐다.

< 국제 - 미중패권전쟁 >

주요일정

1월 2일 美, '반도체·AI·양자' 對中 투자 통제

1월 10일 미국 연방대법원, '틱톡 금지법' 시행 정지 가처분 신청 심리

中 해커에 뚫렸다...발각 뒤집힌 美 재무부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해커가 재무부 직원 컴퓨터와 비기밀 문서에 접근했다"며 "이는 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고"라고 규정했다. 미국 정부는 서둘러 중국의 해킹 공격에 대한 보복 조치 마련에 나섰다. 앤 노이버거 백악관 사이버·신기술 담당 국가안보부보좌관은 "(새해) 1월 미국의 중요 인프라를 보호하고 중국의 사이버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nomad:

보안주는 매주 주말마다 집에서 한번씩 보세요.

보안주는 잇을만 하면 가요.

스윙 계좌에 넣으세요,

• 관련주:

- [특징주] 샌즈랩, MS와 보안기술 협업에 상한가
- [특징주] 소프트캠프, MS 메타버스 '팀즈' 통합 추진 보안솔루션 공급↑
- [특징주] 모니터랩, 윤 대통령 사이버 보안 강화...웹 방화벽 1위 부각

- [특징주] 싸이버원, 사이버 보안 중요성 갈수록 확대... 과기부 정보보호 전문기업 지정 부각
- 시큐센, IPO 출사표 던졌다...'업계 유일 생체인증·전자서명 보안 솔루션'
- [특징주] 이글루, 정부 "인공지능 보안기업 지원"에 '국내 최초' AI 보안관제 솔루션 '부각'
- [특징주] 한씩,美빅테크 클라우드 150조 투자↑...아마존 협력사 재부각
- [특징주] 휴네시온, 데이터 3법 통과로 클라우드 보안 성장 기대
- [특징주] 라온시큐어, '삼성전자-MS' 보안 동맹 맞손... 공식 파트너사 부각
- [특징주] 케이사인 등 보안주 급등... 미국과 중국 때문?
- 지니언스,美 차세대 사이버 보안 인력 양성 프로그램 참여
- 드림시큐리티, 북미서 암호기술 검증 추진..."미국 암호모듈검증 신청"
- SGA솔루션즈, 제로 트러스트 보안 실증 사업 계약...'K-제로 트러스트' 구축 나서

中 중심 희토류 공급망 흔드는 美...공급선 다변화로 주도권 확보 나서

미국이 희토류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중국이 글로벌 희토류 시장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운데 미국은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주도권 확보에 나서고 있다는 평가다.

nomad:
미국의 MP머트리얼즈를 사세요.

美보수진영서 '머스크 안보위협론' 확산..."중국과 깊은 관계"

러셀 오너리 예비역 육군 중장은 31일(현지시간) 중국과 깊은 사업적 관계를 유지하는 머스크가 백악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글을 뉴욕타임스(NYT)에 기고했다.일단 오너리 예비역 중장은 테슬라가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테슬라의 상하이 기가팩토리는 2024년 3분기 기준으로 테슬라 글로벌 인도량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또한 테슬라는 상하이 기가팩토리 건설을 위해 중국 정부가 통제하는 은행으로부터 최소 14억 달러(약 2조 원) 이상을 대출받았다.문제는 중국 현행 법에 따르면 공산당은 자국 시장에서 사업을 벌이는 기업에 각종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화웨이·ZTE 美 퇴출 가시화...삼성 반사이익 기대

미국 통신 장비 시장에서 중국 장비사의 퇴출이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삼성전자를 비롯한 글로벌 통신장비 회사들의 반사이익이 점쳐지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025년 회계연도 국방수권(NDAA·국방예산법)을 통해 '중국산 통신장비 교체 프로그램(Rip and Replace Program)' 가동을 위한 예산 30억 8000만 달러(약 4조 5460억원)를 추가 확보했다.

FCC는 앞으로 90일 이내까지 미국 재무부에 최대 30억 8000만 달러 지급 요청을 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해당 예산을 FCC의 AWS-3 대역 경매 수익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현지 증권사들은 해당 대역 경매 수익으로 34억 달러(약 5조 10억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요일정

- 1월 3일 12월 ISM 제조업 PMI ★
- 1월 7일 12월 ISM 서비스업 PMI ★
- 1월 7일 11월 JOLTs
- 1월 7일 11월 무역수지
- 1월 8일 FOMC 회의록 ★
- 1월 8일 12월 ADP취업자 변동
- 1월 10일 12월 고용보고서 ★
- 1월 10일 1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 1월 14일 12월 생산자물가지수 ★
- 1월 15일 12월 소비자물가지수 ★

Stock market today: Live updates

S&P 500 지수가 올해 마지막 세션에서 소폭 하락 마감하면서 2024년 23%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투자자들이 금리 인하, 경제력, 인공지능에 대한 열기에 힘입어 S&P 500 지수가 2년 연속 연간 20%를 넘는 상승률을 기록한 또 다른 호황을 마무리하면서 화요일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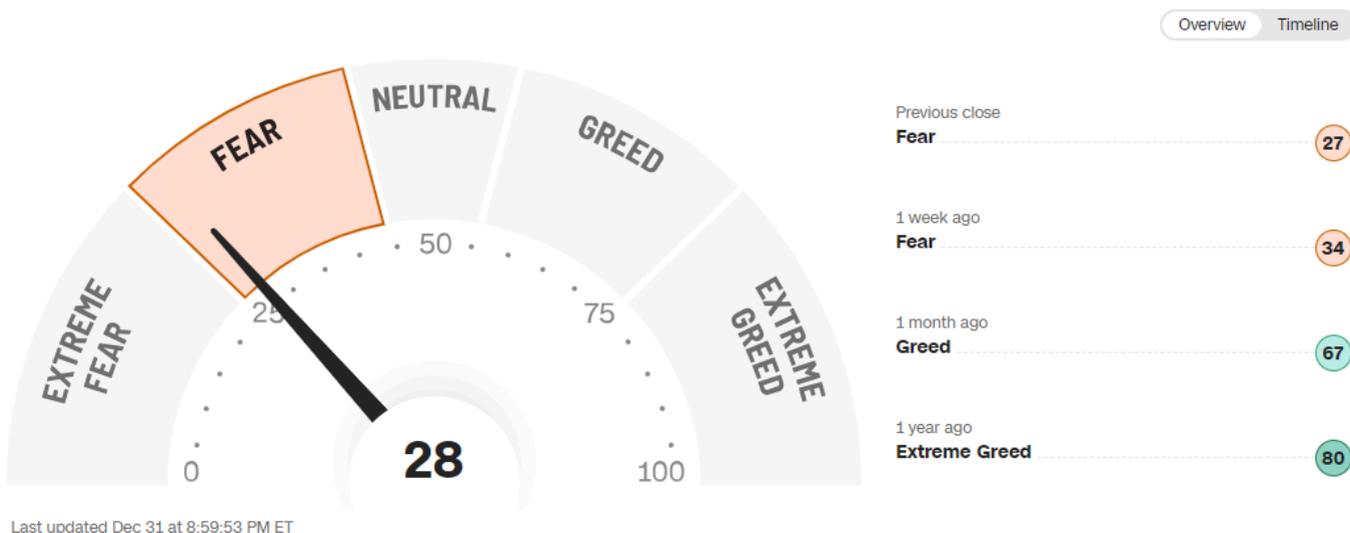
2024년 마지막 거래일에 다우지수는 0.43% 하락한 5,881.63으로 마감했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0.9% 하락한 19,310.79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0.07%(29.51포인트) 하락한 42,544.22로 마감했습니다.

Fear and Greed Index - Investor Sentiment | CNN

Fear & Greed Index

What emotion is driving the market now?

[Learn more about the index](#)



U.S. Treasuries: Last trading day of 2024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이 2024년 마지막 거래일에 상승하여 4.5% 이상으로 연말 마감 화요일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면서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단기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가 상승한 한 해를 마감했습니다.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4.57%로 약 3bp 상승하며 화요일 오전의 하락세를 반전시켰습니다.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4.24%로 1bp 하락했습니다.

nomad:

미국 시장 한번 무너집니다.. 이걸 사람들이 안 보고 있음..
부동산 대박 안 좋음..금리가 계속 오르니..

Dollar reigns with the support of higher yields

높은 수익률에 힘입어 달러가 굳어지다

일본 엔화는 연말 유동성 부족으로 대부분의 통화가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이면서 미국 금리 상승에 힘입어 월요일 달러 대비 5개월래 최저치 부근에서 거래되었습니다.

엔화는 157.71에 거래를 마쳤으며 일본의 개입 위험으로 인해 7월에 마지막으로 160선을 테스트하지 못했습니다.

주요 경쟁 통화 대비 달러 인덱스는 107.98로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S&P500, 올해 7000 간다...M7 상승세는 둔화"

투자은행들은 올해 말 기준 S&P500이 7000을 넘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지난 2년여간 상대적으로 소외된 M7 이외의 종목이 올해는 훈풍을 맞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올해 S&P500지수가 작년만큼은 아니지만 추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26명 분석가 전망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말 S&P500지수가 6508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오픈하이머(7100), 웰스파고(7007), 도이체뱅크·야데니리서치(7000) 등은 7000 수준까지 내다봤다. HSBC(6700), BANK OF AMERICA(6666)는 현재가 대비 11% 이상 오를 것으로 관측했고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JP모간, 씨티그룹은 6500을 점쳤다.

다만 지난 2년간 뉴욕증시 랠리를 이끈 M7 종목의 상승세가 둔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공통으로 제기된다. 트럼프 당선인의 강도 높은 관세 정책을 고려하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 기회가 있다는 판단이다.

nomad:

중소형주를 봐야 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 국제 - 유럽 >

European market: stocks, news, data and market moves

유럽 증시, 새해 연휴를 앞두고 긍정적인 모멘텀을 구축한 후 상승 마감

화요일 유럽 증시는 설 연휴를 앞두고 연휴로 단축된 거래 세션 동안 긍정적인 모멘텀을 구축하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범유럽 스톡스 600 지수는 소폭 하락세로 출발한 후 오전 중반까지 0.27% 상승세로 반전한 후 잠정적으로 0.4% 상승 마감했습니다. 거래 마감 시점에 모든 섹터가 플러스 영역에 있었습니다.

런던의 FTSE 100 지수와 프랑스의 CAC 40 지수는 모두 개장 시 하락세를 보이다가 회복세를 보이며 0.5% 정도 상승했고, FTSE 100 지수는 0.6% 상승 마감하며 4년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프랑스

CAC 지수는 0.9%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 힘이 있어야 협상에서도 존중받을 수 있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의 침공을 끝내기 위해 2025년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우는 해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31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연설을 통해 "평화는 선물처럼 주어지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러시아의 침공을 막아내고 전쟁을 끝내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주

- 세계 1위 대동기어, '매년 1조 트랙터 수입' 우크라이나와 '세계 3대 곡창지대 재건'
- [특징주]SG, 지난해 수십배 조단위 매출목표 현실로...미리 준비한 우크라 재건 수혜
- 전진건설로봇, 주가 들썩...트럼프 "우크라戰 종식 위해 러·우 정상과 대화"
- 에스와이, '1200조원 규모' 우크라이나 재건 시동...현지 업체와 공장 설립
- 코오롱글로벌-에스와이, 우크라 재건사업 협력 업무협약
- [특징주] 다산네트웍스,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 소식에 상
- [특징주] 삼부토건,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
- [특징주]디와이디, 계열사 삼부토건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에 강세
- 다산네트웍스 다산솔루에타 주가 장중 상한가,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 소식에
- 알비케이그룹, 우크라 재건 통신망 구축 참여...재건株 꿈틀 (현 이노인스트루먼트)
- 비에이치아이, 바르샤바 간담회 참석...우크라 재건 협력 논의
- 1200조 우크라 재건 수혜 기대되는 'K-모듈러 기업'은?
- [특징주] 자연과환경, 국내 최초 내장 마감일체형 PC모듈러 주택 기대감에 강세
- [특징주] 범양건영,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일환 모듈러 사업 요청 가능성에 강세
- [특징주] 스펀코, 尹 '우크라 지원' 의지에 강세... 재건 관련주 부각
- [특징주] 인디에프, 쌍용건설·글로벌세아와 우크라 재건사업 참여 가능성에 강세
- [특징주] 대모, 헝가리 총리 "러, 우크라 5월9일 전쟁 종료" 전언에 재건주로 부각
- [특징주] 현대에버다임, EU 수장 "러 382조 자산 우크라이나 재건 사용" 제안에 강세
- [특징주]수산중공업, 우크라 재건 기대감 유압브레이커 등 점유율 1위 부각↑
- [특징주] 서연탑메탈, 우크라이나 차관 방한에 재건 수혜 기대감 ↑
- 대창단조, 두 달 새 60% 상승..."우크라 재건 기대감"
- [특징주] 동일고무벨트 급등.. 우크라 재건 기대감
- DS투자 "HD현대건설기계, 우크라 종전까지 주가상승...목표가↑"
- [종목이슈] 우크라 재건에 철강만 30조원 규모 필요...신스틸 '눈길'
- "우크라 재건 핵심요소"... 철도株, 최대 수혜주로 급부상
- 범현대家, 우크라이나 재건 뭉친다 [biz-플러스]
- [단독] 한미글로벌, 폴란드 전초기지 통해 우크라 재건 시장 진출
- [특징주] 유신, 2000조 규모 우크라 재건 사업 본격화에 재건협력단 참여 부각
- 희림,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수혜 기대
- [팩트폭격] 도화엔지니어링, 상장사 유일 우크라이나 진출..."전후 복구 사업 참여할 것"
- "노노노" 중소형 건설주 상한가 행진...이유는?
- 신영증권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 현대건설 삼성물산 건설주 수혜 전망"
- TYM, 우크라이나 국회의원단과 재건 사업 협력 논의
- 대동, 우크라이나 현지 총판과 300억 규모 트랙터 공급 계약 체결

젤렌스키 신년사 "트럼프, 푸틴 침략 종식할 의지와 능력 있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신년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복귀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AFP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자정 직전 대국민 연설에서 "새 미국 대통령이 평화를 이루고 (블라디미르) 푸틴의 침략을 종식하려는 의지와 능력이 있다는 데 의심이 없다"고 말했다.

< 국제 - 중국 >

주요일정

1월 12일 12월 생산자·소비자물가지수

[중국증시-마감] 내년 통화정책 기대감에도 혼조세

30일 중국 증시는 혼조세로 장을 마쳤다.

내년 중국 당국의 통화정책 기대감 속에서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커진 영향을 받았다

상하이종합지수는 전일 대비 7.18포인트(0.21%) 오른 3,407.33에, 선전종합지수는 6.47포인트(0.32%) 하락한 2,008.49에 장을 마감했다.

[대만증시-마감] 거래량 축소 속 좁은 폭 등락

30일 대만증시는 소폭 하락했다.

연말을 맞아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가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약보합권에서 횡보했다. 대만 가권지수는 전장 대비 85.48포인트(0.37%) 내린 23,190.20에 장을 마쳤다.

중국 12월 제조업 활동, 3개월 연속 확장 전망

중국의 제조업 활동은 12월에 3개월 연속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트럼프 두 번째 행정부 하에서 미국의 추가 무역 관세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2위 경제를 안정시키려는 관리들에게 희미한 낙관론을 제공할 전망이다.

로이터가 28명의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식 구매관리자지수(PMI)가 11월 수치와 동일한 50.3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활동의 성장과 위축을 가르는 50포인트 기준선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시진핑, 신년사서 '경제난' 빼고 자신감 강조..."도전 극복 가능"

시 주석은 31일 관영 중국중앙TV(CCTV)로 방송된 2025년 신년사에서 "현재 경제의 운영은 일부 새로운 상황에 직면했고, 외부 환경에 불확실성이라는 도전이 있으며, 신구(新舊) 동력의 전환에 압박이 있다"면서 "그러나 이들은 노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신년사에서는 중국의 '성과'가 집중 소개됐다.

시 주석은 "우리는 지역 사정에 맞게(因地制宜) 신품질 생산력을 육성했고, 신산업·신업종·신모델이 앞다퉈 등장했다"며 "신에너지차 연간 생산량이 처음으로 1천만대를 돌파했고, 집적회로와 인공지능(AI), 양자통신 등 영역에서 새 성과를 거뒀다"고 했다.

시진핑 신년사때 책장·사진 치워... 국가·만리장성으로 국가강조(종합)

올해는 이러한 가족사진은 물론 책이나 책상 위의 전화기, 필기구 등 시 주석 개인과 관련된 물품은 모두 치워지고 중국을 상징하는 국기와 더 커진 만리장성 그림만 남은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앞두고 '외부의 비바람'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권위를 강조해 내부 단결을 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올해 신년사에서 중국의 성과와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부각하면서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이라는 도전과 신구(新舊) 동력 전환 압박 등 몇 가지 새로운 상황에 직면해 있지만 이들은 노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심각한 저출산 위기에 "임신 언제 해요?"... 독촉 전화 돌리는 중국

중국 정부가 심각한 저출산 위기에 이를 해결하고자 전국적인 출산 장려 캠페인을 벌여 데이트·결혼·출산 등을 권유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최근 주요 외신은 중국 지방정부가 20대와 30대 기혼 여성에게 전화해 임신 계획을 물어보고 부모들에게 현금을 지원하며 자녀를 두 명 이상 낳도록 장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10월 중국 국무원은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출산 친화적 사회' 건설 계획을 발표하는 등 출산 장려에 힘을 쏟고 있다.

중국軍, 세계 최초로 군용 5G 시스템 개발... 1만대 군사로봇 동시 제어

중국이 세계 최초로 전장(戰場)에서 운용 가능한 군사용 '5G(5세대이동통신) 이동 기지국'을 개발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31일 중국 학술 논문을 인용해 보도했다. 지상 기지국이 없거나 위성 신호가 손상된 전장에서도 수만 대의 군사 로봇을 동시 제어할 수 있는 통신 기술을 중국이 다른 나라에 앞서 손에 넣었다는 것이다.

< 국제 - 그외 >

日닛케이지수 연말 증가 39,894...35년 만에 역대 최고 경신

일본 증시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225 평균주가(이하 닛케이지수)가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 30일 39,894로 장을 마감했다.

연간 상승 폭은 6,430포인트로 작년 연말 증가 대비 19%가량 올랐다.

연말 증가 기준으로 '거품(버블) 경제' 시기였던 1989년의 38,915를 35년 만에 뛰어넘는 역대 최고치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이 전했다.

이 신문은 생성형 인공지능(AI) 호황과 상장기업 자본 효율 개선 등의 영향으로 닛케이지수가 상승했다고 짚었다.

이란·영프독 13일 핵문제 추가 회담

이란과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3개국이 오는 13일(현지시간) 이란 핵프로그램 문제를 추가로 논의한다고 AFP통신 등이 1일 보도했다.

< 원자재 >

Brent oil prices post 3% annual decline, slipping for second year in a row

브렌트유가 연간 3% 하락, 2년 연속 하락세 기록

2024년 유가는 팬데믹 이후 수요 회복이 지연되고 중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으며 미국과 기타 비OPEC 산유국들이 공급이 풍부한 글로벌 시장에 더 많은 원유를 공급하면서 약 3% 하락하여 2년 연속 하락세

를 보였습니다.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 화요일 브렌트유 선물은 65센트(0.88%) 상승한 배럴당 74.64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미국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는 73센트(1.03%) 상승한 배럴당 71.72달러로 마감했습니다.

브렌트유 벤치마크는 2023년 최종 증가인 77.04달러에서 약 3% 하락한 반면, WTI는 작년 최종 결산과 거의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美 하루새 천연가스 선물가격 16% 폭등★★

뉴욕상업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2월 인도분 천연가스 선물 가격 증가는 100만BTU당 3.936달러로 전 거래일 증가 대비 16% 올랐습니다. 이는 해당 상품 선물거래가 시작된 2012년 이후 가장 큰 일간 상승률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은 이날 오전 장중 100만BTU당 4.2달러까지 올라 전장 대비 24%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내년 1월 중 미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파가 닥칠 것이란 예보가 나오면서 천연가스 수요 증가 기대로 이어졌습니다.

- 천연가스 관련주: 지에스이, 대성에너지, 대성산업, SH에너지화학, 큐로홀딩스, 포스코인터내셔널, LX인터내셔널, 현대코퍼레이션, 일승
 - 일승, LNG운반선 트럼프 훈풍에 내년 美발주 물량 싹쓸이 기대감↑ [특징주]
 - [특징주] 지에스이, LNG 가격 상승에도 공급량 확대 불가 소식에 강세...15%↑
 - 메리츠증권 "한국가스공사, 동해 가스전 수혜 가능성 있어"
 - [특징주]대성에너지, 아시아 LNG 현물가격 5배 급등...도시가스 공급·천연가스 충전소 운영
 - [특징주] 대성산업, 포항 앞바다 최대 29년치 천연가스·4년치 석유 발견 소식에 강세
 - [특징주] SH에너지화학, 미 광권 보유...천연가스 20%급등 소식에 상승세
 - [특징주] 한선엔지니어링, AI 전력 품귀 대체제 '천연가스' 낙점 소식에 강세
 - [특징주] SNT에너지, 러시아 LNG 대란 미국 대체 가능성에..美FWNAC 독점실시권 취득↑
 - [특징주]큐로홀딩스, 가스 값 1000% 폭등...미 텍사스 대규모 유·가스전 사업 부각↑

우크라, 러시아산 가스 공급 중단...유럽 가스값 1년 만에 최고

시장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시장에서는 에너지 소비량이 큰 겨울철 가스 공급 차질로 슬로바키아 등 일부 국가의 가스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가스 운송 중단을 하루 앞둔 이날 유럽 천연가스 가격지표인 네덜란드 TTF 선물 시장에서 2월물 선물 가격은 한때 MWh(메가와트시)당 50유로까지 치솟기도 했다. 2023년 11월 이후 1년여 만에 최고치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에 따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오랜 기간 유럽 국가들이 이에 대비해왔기 때문에 가스 가격이 일시적 상승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러, 우크라 가스관 잠근다...EU, 한겨울에 공급 5% 감소

우크라이나를 통한 러시아 가스 공급이 1일(현지시간)부터 끊긴다.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맺었던 유럽에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가스관 운송 계약이 2024년 12월 31일로 끝나기 때문이다.유럽연합(EU)은 한겨울에 전체 가스 공급의 약 5%를 상실하게 됐다.

nomad:

정말 잠겼죠. 전 세계 에너지 가격이 오를 것이고, 지금은 한겨울입니다.

가스주들과함께 대체 에너지 관련주도 보세요.

2022년 전쟁 발발 후에는 휴대용 난방기도 주가가 됐습니다.

Perfect storm fuels gold's best yearly performance since 2010 as Trump 2.0 looms

트럼프 2.0이 다가오면서 퍼펙트 스톰이 2010년 이후 금의 연간 최고 실적을 견인합니다.

금값은 안전자산 수요와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에 힘입어 2010년 이후 연간 최대치인 26% 이상 급등할 것으로 보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분위기가 더 조심스럽게 변할 수 있습니다.

현물 금은 온스당 0.7% 상승한 2,622.85달러, 미국 금 선물은 0.8% 상승한 2,638.1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중앙은행의 강력한 매입, 지정학적 불확실성, 통화 정책 완화로 인해 2024년 안전자산인 금은 사상 최고치인 2,790.15달러를 기록하며 10월 31일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대왕고래' 지원나선 경북...5천억 펀드 추진

30일 경북도에 따르면 '에너지 투자펀드'는 내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5000억원, 연간 10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자원개발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면 최소 5번 이상의 시추가 필요하고 향후 수년간 5000억원가량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에너지 투자펀드를 통해 한국석유공사와 힘을 합쳐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돕겠다는 구상이다.

< 국방 >

"北 비핵화 포기하자"...美서 고개드는 현실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러시아·이란·북한의 반미 연대를 무너뜨리기 위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포기하고 친분이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미 전문가들이 주장했다.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평화 협상을 하라는 것인데 트럼프 2기 출범을 계기로 미국 내에서 이 같은 목소리가 확산할지 주목된다. 미 싱크탱크 실버라도폴리시액셀러레이터의 대표인 드미트리 알페로비치와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의 세르게이 라드첸코 교수는 29일(현지 시간) "트럼프와 김정은의 후반전, 세계를 흔들 수도" 제하 NYT 기고에서 이같이 제언했다.

nomad:

대북주도 준비를 설설하자...

軍 "북, 남포서 4천t급 호위함 건조 중"...수직발사대 갖춘 듯

FT "러시아, 한국과 전쟁시 포항제철 공격 계획"

러시아가 한국 및 일본과 전쟁을 벌이는 상황을 가정하며 민간 시설까지 표적으로 삼는 훈련 계획을 수립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31일(현지시각) FT는 러시아군 기밀문서를 입수했다고 주장하며 러시아가 한국과 일본을 공격하기 위해 장교들을 이같은 방식으로 훈련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해당 문서가 2013년 또는 2014년에 회람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합참의장 "빈틈없는 작전태세로 적 위협 억제"...작전부대장 통화

< 정부정책 >

주요일정

1월 3일 자율운항선박법 시행령 시행

< CO2 / 신재생 >

中 폴리실리콘 빅 3 감소...韓 태양광 기업 별드나

중국 태양광 폴리실리콘 1~3위 업체가 연달아 생산량 감축을 선언했다. 과잉 공급으로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락해 실적이 악화하자 이를 만회하려는 전략이다. 세계 2위 시장인 미국에서 중국산 태양광 제품이 퇴출당할 위기에 처하자 선제 대응에 나섰다 분석도 나온다.

The California grid ran on 100% renewables with no blackouts or cost rises for a record 98 days |

Electrek

캘리포니아 전력망은 기록적인 98일 동안 정전이나 비용 상승 없이 100% 재생 가능 에너지로 운영되었습니다

저널 재생 가능 에너지(Renewable Energy)에 발표된 새로운 연구는 캘리포니아 주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2024년 늦겨울부터 초여름까지 116일 중 기록적인 98일 동안 하루 평균 4.84(10.1)시간 동안 풍력-물-태양열 전기 공급이 주 그리드의 수요의 100%를 초과했을 때 정전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합니다.

nomad:

RE100은 결국 가야 하는 과제.

다음 정권은 어차피 민주당. 신재생 에너지는 정해진 미래다.

2025달라지는 것들...'탄소배출권'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 통해 거래 가능

올해 2월부터 온실가스 연 배출량이 3000t 이하 소량 배출 사업장은 주소지를 옮기고 신고하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올해 6월부터 배출권 이월 제한 기준도 완화된다.

올 하반기부터는 배출권 거래 중개업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할당 대상 업체와 금융기관 등은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를 통해 배출권 위탁 거래를 할 수 있다.

기존에는 한국거래소 등 배출권 거래소를 통한 직접 거래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배출권 거래 중개 회사로 등록된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을 통해 거래가 가능해진다.

nomad:

정부의 지원도 걸려 있고..미래가 밝다.

• 관련주

- [\[머니투데이\] 탄소배출권 상품 거래 시범사업자... NH증권, 탄소금융 선점박차](#)
- [\[특징주\]에코아이, 상장 이틀째 강세...상한가](#)
- [\[특징주\] 에코프로에이치엔, 탄소배출권 판매사업 부각에 10%↑](#)
- [\[특징주\]한솔홈데코, 사우디 왕세자의 25억달러 탄소저감 투자 소식에 급등](#)
- [\[특징주\] 에어레인, 트럼프·머스크 탄소 포집 적극 지원...'국내 유일' 기체 포집 기술력 수혜감↑](#)
- [\[특징주\]그린케미칼, MS '탄소 제로' 삼성·하늬도 강제 ...국내유일 '탄소포집' ETA 제조](#)
- [\[특징주\] 유니드, 호실적·탄소포집\(CCUS\) 사업 수혜 기대감으로 강세](#)
- [\[특징주\]에코바이오, 동해 가스전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사업 추진에 연이틀 '급등세'](#)
- [에코프로에이치엔, 2000억 유증..."신사업으로 2028년 매출 1조"](#)
- [\[특징주\] KC코트렐, 美바이든 기후정책 2000조 투자...국내유일 온실가스 CCS기술 보유 부각↑](#)
- [\[특징주\]캠트로스, 탄소중립·기술독립 시작점...핵심소재 국산화에 '러브콜'](#)
- [태경비케이, '탄소중립' 현대오일뱅크와 CCU 기술개발 협력 수혜](#)
- [클라우드에어, 미세조류 활용 탄소 포집·이용 기술 개발 박차](#)
- [웨이버스, 트럼프·머스크 탄소포집 지원...한국석유공사와 CCS 공동특허 보유 '상승세'](#)
- [\[특징주\]동방,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 소식에↑](#)

< 미래차 >

[7500달러 세액공제 폐지시 美 전기차 판매 영향은?](#)

마켓워치는, 따라서 세액 공제가 폐지되어도 테슬라의 저가 모델이 정상적으로 출시되면 판매량은 거의 줄지 않거나 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테슬라는 2025년에 약 210만대의 자동차를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올해의 180만대보다 약 17% 증가한 수치다. 테슬라는 새로운 모델을 기반으로 20%에서 30%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7,500달러의 세액 공제 제도가 폐지될 경우 가장 큰 타격은 주로 수입 브랜드 전기차에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테슬라, 상하이 메가팩 배터리 공장 완공](#)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에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 '메가팩 배터리' 공장 건설을 마무리 하고 시험 생산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1일 신화통신·IT즈자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테슬라는 메가팩 배터리 생산 공장인 상하이 '메가팩토리'가 지난 27일 준공 검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테슬라의 3분기 실적을 보면 테슬라의 발전 및 에너지 저장 사업 매출은 23억 7,600만 달러(약 3조 5,000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52.4% 급증했습니다. 에너지 저장사업의 총이익률은 창사 이래 가장 높은 30.5%를 기록, 자동차 사업부문 총이익률을 크게 앞섰습니다.

[Tesla to start deploying V4 Superchargers in China in 2025 - CnEVPost](#)

Tesla, 2025년 중국에 V4 슈퍼차저 배치 시작

테슬라(Tesla, NASDAQ: TSLA)가 2025년 중국에 첫 번째 V4 슈퍼차저를 배치할 예정이라고 미국 전기차 (EV) 제조업체가 오늘 웨이보에 올린 포스터에서 밝혔다.

V4 슈퍼차저는 Tesla의 최신 충전 기술을 사용하여 충전 경험을 최적화한다고 밝혔습니다.

BYD Chalks Up New Record as It Narrows EV Sales Gap With Tesla

BYD, 테슬라와의 전기차 판매 격차를 좁히며 신기록 달성

중국의 BYD는 지난해 연말 급증세를 보이며 총 425만 대의 승용차를 판매해 테슬라와의 격차를 좁히며 2024년 최고 판매량 전기차 제조업체의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화석 연료로 구동되는 차량 생산을 중단한 선전에 본사를 둔 이 자동차 제조업체는 보조금과 구매자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12월에 월간 판매량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중, 모든 전기차에 자국산 칩 심는다

중국이 모든 전기차에 자국 내에서 생산한 반도체 사용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이 반도체 자립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에 대한 자동차 반도체 수출이 막힐 경우 서방 업체들의 타격이 예상된다.

nomad:

지난 해 했던 2025 시장전망 (1) 중국 반도체와 그대로 일치하는 내용.

"리튬 가격 내년에도 암울"...K-양극재, 실적 반등 멀어지나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올해 3분기 킬로그램(kg)당 리튬 시세는 76위안이지만 올해 4분기 가격은 72.87위안 정도로 예상된다. 새해도 1분기와 2분기 리튬 가격은 이보다 낮은 68.86위안, 69.10위안 수준으로 전망된다.미국 뱅크오브아메리카(BoA)도 새해 리튬 가격의 약세가 이어질 것이라 내다봤다. BoA는 현재 810달러 수준인 스포듀민(리튬 원석)의 가격이 새해에는 750달러 정도일 것으로 관측했다.BoA는 "리튬 생산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에서 활동을 줄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시장의 공급 과잉을 해소하려면 전기차 보급률이 현재보다 10%포인트(p) 높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美 '14조원 대출'까지 받았다...2025년은 SK온 '북미 반격'의 해

SK온이 자금 조달 문제를 사실상 매듭짓고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반격을 준비한다. 2025년을 IPO(기업공개) 성공을 위한 발판으로 만들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다.

30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SK온과 포드의 JV(합작사)인 블루오벌SK는 최근 DOE(미 에너지부)로부터 96억3000만 달러(약 14조원) 규모의 정책자금 차입을 최종 승인받았다. ATVM(첨단기술차량제조)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블루오벌SK는 지난해 6월 이 차입의 조건부 승인을 획득했었는데, 연내 대출을 확정받은 것이다.

유니트론텍, 인천공항의 테슬라 되나...공항화물 자율운송 테스트

자회사(지분율 51%)로 인수한 토르드라이브와의 협력을 통해 공항, 물류센터 등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되는 자율주행 기술 기반 사업을 확장 중이다.

토르드라이브는 지난 4일 인천국제공항 제한구역 화물 견인 차량 자율주행 시험 운행 자격을 획득하고 올해 차량 2대를 투입해 본격적인 자율주행에 나선다.

토르드라이브를 통해 유니트론텍의 잠재력이 더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2015년 설립된 토르드라이브는 자율주행 기술 전문기업으로 라스트마일 배송과 자율주행 물류 솔루션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2019

년 이마트와 시범운영 계약을 맺고 국내 최초로 도심 자율주행 배송을 했다. 2020년 9월에는 인천국제 공항 여객터미널에 세계 최초로 실내 무인 운송 수단 '에어 라이드'(Air Ride) 2대를 공급했다.

< 우주 항공 >

"요, 2027년부터 '하늘을 나는 자동차' 운항한다"

일본 전일본공수(ANA) 홀딩스가 2027년부터 '하늘을 나는 자동차' 운항을 시작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31일 ANA 홀딩스가 2027년께 도쿄 도심과 지바현 나리타공항을 10~20분 만에 잇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상용화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는 미국 조비에비에이션의 5인승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eVTOL)를 활용해 운항한다.

ANA 홀딩스는 우선 도쿄 도심을 도는 여행 상품을 선보인 뒤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할 방침을 세웠다.

< 삼성전자 / 반도체 >

주요일정

1월 2일 삼성전자, '갤럭시 북5 프로(Pro)' 출시

1월 8일 삼성전자, 4분기 잠정실적 발표 ★

올해도 믿을 건 HBM...1분기 D램·낸드 가격 8~15% 하락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D램 가격은 8~13%, 낸드 가격은 10~15%가량 떨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트렌드포스는 "메모리 업체들은 올해 1분기에 재고 수준 증가와 주문 수요 약화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잠재적인 수입 관세에 대비한 노트북 제조 업체들의 조기 재고 비축도 가격 하락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고대역폭메모리(HBM),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eSSD)와 같은 인공지능(AI) 특화 반도체의 견조한 수요와 가격 흐름이 범용 메모리 가격 하락 폭을 일부 상쇄하면서 당시와 같은 최악의 상황으로는 치닫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현재는 우세하다. 특히 지난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HBM은 올해도 견조한 수요를 유지하며 전체 D램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트렌드포스는 "HBM은 급증하는 AI 수요에 힘입어 D램 산업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부상했다"며 "특히 HBM3E(5세대)는 2025년에도 타이트(부족)한 공급이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삼성전자, 2나노 파운드리 고객사 추가 수주... "초기 수율 확보 청신호"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나노 고객사 확보를 위해 대외 수주 활동을 벌이며 다수의 업체와 테스트 과정을 거치고 있다. 최근 국내 한 AI 반도체 기업은 차세대 NPU를 삼성전자 2나노 공정에서 생산하기로 확정하고 협업을 진행 중이다. 올 연말 파운드리 사업부장에 취임한 한진만 사장은 2나노 제조 수율을 획기적으로 높ی겠다고 밝힌 바 있다.

美 반도체 규제 무색... 中 바이트댄스, 엔비디아 칩 10조원어치 조달 계획★★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바이트댄스는 내년 70억달러(약 10조3000억원)를 투자해 엔비디아 주력 AI 칩 '호퍼' GPU(그래픽처리장치)를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구상이 현실화할 경우 바이트댄스는 미국의 강력한 규제에도 엔비디아 칩을 가장 많이 소유한 글로벌 기업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미 정부는 첨단 반도체 기술이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22년 10월부터 중국으로의 AI 칩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디인포메이션은 바이트댄스가 엔비디아 첨단 칩을 중국으로 직접 들여오지 않고 동남아시아 지역 곳곳에 있는 데이터센터에 비축해 둔다고 전했다. 미 규제와 상관없는 국가의 데이터센터에서 칩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 관련주:

- [특징주]이수페타시스, 역대 최고가...클라우드 AI 및 애플 수혜 부각
- [특징주] 두산, 미국 엔비디아 차세대 AI 반도체 핵심소재 'CCL' 단독 공급 소식에 강세
- [특징주]솔루스첨단소재, 엔비디아에 AI전용 동박 납품 소식에 주가↑
- [특징주]덕산하이메탈, 엔비디아 매출 폭증...세계1위 AI 부품 솔더볼 공급↑
- 수출 1억弗 달성한 티에스이 "비메모리 키워 3년 내 2배로"
- [특징주] 엠케이전자, AI 대장 엔비디아에 반도체 소재 공급 '↑'
- "SK하이닉스와 도약"...한미반도체 'TC 본더' 수주효과 내년 본격화
- [기업 이모저모] 한화 김승연 회장 입에서 나온 '반도체'
 - 한화정밀, SK하이닉스 켈테스트 순항...현대차증권 오보 리포트 '사실무근'
- [특징주]윌트, 삼성·SK 후공정 업체와 D램·HBM 투자 논의...핵심장비 국산화↑
- [특징주] 와이씨켐, SK하이닉스 16단 HBM 최초 공개 소식에 'TSV' 공정 국내 첫 국산화 부각
- 마이크로투나노, 엔비디아향 HBM3 프로브카드 SK하이닉스 공급
- 퓨릿, 코스닥 출사표..."반도체 소재부터 리사이클링까지"
- [특징주]아이엠티, SK하이닉스와 세계 첫 HBM용 Burn-In 테스트 소켓 Cleaner 공동 개발
- 디아이티, '레이저 어닐링' SK하이닉스 HBM 최선단 진출
- [특징주]디아이, 2일만에 또 신고가...HBM 테스트장비 국산화 기대감
- 에스티아이, 플렉스 리플로우 장비 신규 개발 성공..."SK하이닉스 공급 시작"
- [특징주]레이저셀, 구글·애플·아마존 AI 반도체 직접 개발 경쟁...세계유일 면레이저 광학기술 보유 부각↑
- (23.03.27)'실적 개선세' 이오테크닉스, 저조한 'ESG 성적표'
- TSMC도 탐낸 프로텍 LAB 장비, 판매불가 족쇄 풀렸다
- 반도체 후공정 장비주 급등...TSMC·SK하이닉스 납품 기대감
-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꽃힌 이것...HBM 수혜주는
- [특징주]원팩, AI반도체 점유율 90% 엔비디아 SK하이닉스 HBM 샘플 입고 요청↑
- SKC, 반도체 솔루션 업체 ISC 인수로 시너지 영역 다양화 -SK
 - SK 식구되는 ISC, 삼성·하이닉스 놓고 고심의 '저울질'
- 인텍플러스, AI 반도체 수요 급증에 CoWoS 패키징 '수혜'
- [특징주]시그네틱스, 삼성전자 첨단 패키지 기술로 반도체 '초격차'에↑
- 리노공업 '넘사벽' 기술에 꽃힌 외국인
- 제우스, 삼성·SK 'HBM 경쟁' 수혜...후공정으로 성장 노린다
- [특징주]큐알티, HBM·CXL 필연적인 수혜...'시가총액 1조'의 길
- [특징주] 제이티, 5세대 HBM 수요 급증 조짐... SK하이닉스 장비 발주 이력 부각
- [특징주] 오로스테크놀로지, 'HBM' 두고 삼성전자·SK하이닉스 각축전에 강세
- 샘씨엔에스, 세라믹 STF 국산화 선도...삼성·SK·마이크론·인텔에 납품

< AI / 로봇 >

워드부시 "올해도 엔비디아"...AI혁명서 승리할 10개 후보 선정★

워드부시는 트럼프 2기 정부가 규제 완화에 나설 경우 2025년에도 기술 업종 주가가 평균적으로 25%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워드부시의 분석가들은 또 현재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AI 하드웨어 업체들이 주도하는 AI 파티에 더 광범위한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워드부시가 뽑은 2025년 AI 혁명의 승리자 가운데 1위는 여전히 엔비디아이다. 2위 마이크로소프트, 3위 팔란티어, 4위 테슬라, 5위 구글 모회사 알파벳, 6위 애플 7위 몽고DB, 8위 페가스시스템스, 9위 스노우플레이크, 10위 세일즈포스이다.

"당장 돈 안되고 성능향상 기대 못 미쳐도"...세계는 AI인프라 영끌★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AI 인프라 확장을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알파벳 등의 주요 테크 기업들은 올해 AI 인프라 구축에 약 2090억달러(약 306조4567억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이는 2021년 대비 약 두 배 증가한 수치로, 주로 생성형 AI 기술 개발과 데이터센터 확장에 사용될 전망이다.오픈AI는 최근 66억달러(약 9조6775억원)를 추가로 조달했으며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인공지능(AI) 기업 xAI는 60억달러(약 8조7978억원) 규모 추가 투자금을 유치했다. 아마존은 앤스로픽에 추가로 4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총투자 규모는 80억달러에 이른다.각국도 AI 투자를 늘리고 있다.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반도체와 AI 산업 육성을 위해 2030년까지 총 10조엔(약 93조1490억원)의 공적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미국은 첨단 반도체와 AI 연구를 결합해 경제적·군사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AI 기술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 중이다. 대만은 AI 산업에 향후 3년간 매년 300억대만달러(약 1조3434억원)를 투입할 예정이다.

nomad:

올해 AI는 여전히 강하다. 그중에서도 컨슈머 AI는 터진다..

美 엔비디아, 이스라엘 스타트업 런에이아이 인수 완료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가 이스라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런에이아이(Run:ai) 인수를 완료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4월 런에이아이 인수를 발표한 지 8개월여만이다. 엔비디아는 구체적인 인수 금액을 밝히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이번 인수 거래가 7억 달러(약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libaba (BABA) cloud unit slashes prices on AI models by up to 85%

Alibaba, 중국 AI 경쟁이 가열됨에 따라 대규모 언어 모델 가격을 최대 85% 인하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의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부인 알리바바 클라우드(Alibaba Cloud)는 화요일 자사의 시각 언어 모델인 Qwen-VL의 가격을 최대 85%까지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의 거대 기술 기업들 사이에서 초기 인공지능 제품으로 더 많은 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경쟁이 얼마나 심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젠슨 황, AI 다음 물결 밝힌다...8년만의 CES 기초연설★

1월6일 오후 6시 30분(한국 시간 1월 7일 오전 11시 30분) CES 스테이지에서 엔비디아 창립자이자 CEO인 젠슨 황이 기조연설에 나선다.전 세계는 무엇보다 젠슨 황의 입에서 어떤 'AI 비전'이 나오느냐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그는 AI 전도사 역할을 넘어 로봇과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 가상세계, 스마트 공장 등 다양한 이슈를 주제로 미래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특히 젠슨 황의 로봇 분야에 대한 관심은 전 세계인의 시선을 사로 잡고 있다.황 CEO는 지난 10월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레노버 테크 월드' 행사에서 "AI는 본질적으로 로봇"이라고 강조했다.

• 관련주:

- [특징주] 유니퀘스트, 엔비디아 AI 로봇으로 '챗GPT 혁명' 잇는다...'핵심 솔루션' 젠슨 모듈 국내 독점 공급 '주목'
- [특징주] 에스넷 주가 급등, 엔비디아와의 AI 사업 협력 본격화
- [특징주] 세코닉스, 강세...美엔비디아 로봇 사업 진출에 카메라 렌즈 공급사 부각
- [특징주]알에스오토메이션, 엔비디아 상반기 '젯슨 토르' 출시 예정...핵심부품 부각↑
- [특징주] 원익홀딩스, 엔비디아 휴머노이드 로봇 경쟁 본격화...알레그로 핸드 채택↑
- [특징주]티로보틱스, 엔비디아 차세대 자율주행로봇 플랫폼 공개... 로봇 합작법인 부각에 강세
- [특징주] 케이엔알시스템,엔비디아·보스턴다이내믹 로봇소프트웨어 공동개발 '맞손' ...수혜 기대감↑
- [특징주] 클로봇, '보스턴다이내믹스, 휴머노이드 개발' 동맹...'공동개발 확대' 소식에↑
- [특징주]TPC, 엔비디아 'GTC 2024'서 TM로봇 세션 참여...국내 판매사 부각↑
- 씨이랩, 가상 데이터 통해 로봇 자율주행 위한 'AI 학습 데이터' 구축
 - 씨이랩, '엔비디아 옴니버스 AI 기술 적용'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한다

올사년 새 전쟁터는 'AI로봇'...재계 총수들, '휴머노이드' 등 선점 사활★

국내 주요 기업들, 특히 총수들이 로봇 분야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미래 제조 공장의 혁신을 넘어 '삶의 질'을 바꿀 핵심 기술로 꼽히기 때문이다. 생성형AI 등장으로 '대화'의 영역에서 혁신이 바람이 불었다면, 다음 세대로 일컬어지는 '피지컬AI' 시대가 도래하면 육체적인 분야에서 체감이 더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마켓앤드마켓이 전망한 서비스로봇 시장 규모는 2024년 471억달러(약 69조원)에서 2029년에는 986억5000만달러(145조2000억원)로, 연평균 15.9%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로봇에는 의료·배송로봇뿐 아니라 무인운반차량(AGV), 휴머노이드, 건설로봇 등 환경·공장·병원·공공 등 전문응용분야도 포함된다.

삼성전자, 레인보우로보틱스 최대주주로... 미래로봇 사업 속도★★

삼성전자는 지난해 868억원을 투자해 지분 14.7%를 갖고 있는 레인보우로보틱스에 대해 보유 중인 콜옵션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지분을 35.0%로 늘려 기존 2대 주주에서 최대 주주가 된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삼성전자의 연결재무제표상 자회사로 편입될 예정이다.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 기술에 레인보우로보틱스의 로봇 기술을 접목해 지능형 첨단 휴머노이드 개발을 가속화할 예정이다.이번에 신설한 미래로봇추진단은 휴머노이드를 포함한 미래로봇 기술 개발에 집중하는 조직으로, 향후 패러다임을 바꿀 미래로봇의 원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핵심 성장 동력화한다는 계획이다.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창업 멤버이자 카이스트 명예교수인 오준호 교수는 레인보우로보틱스 퇴임 후 삼성전자 고문 겸 미래로봇추진단장을 맡는다.

• 관련주:

- 에스피지, 레인보우로보틱스 '휴머노이드' 감속기 개발 성공...공급 개시
 - 최근 개발된 양팔형 로봇(제품명: RB-Y1)은 오른팔·왼팔 각각 3kg의 중량을 자유롭게 핸들링할 수 있으며, 각 관절에 20개의 감속기와 이동을 위한 휠에 2개의 감속기가 필요하다. 해당 감속기들은 모두 에스피지에서 공급하고 있다.
- 알에스오토메이션, 국내 최초 휴머노이드-협동로봇 핵심부품 '초소형 정밀 엔코더' 상용화 성공
 - 알에스오토메이션, 삼성 '반도체 공정 100% 무인화'에 로봇컨트롤러 수주 '날개 다나'

- 알에스오토메이션은 삼성전자와 공동 개발한 로봇컨트롤러를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에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관계자는 "알에스오토메이션은 2005년 이래 매년 로봇제어기를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등 삼성그룹사에 공급하고 있으며, 그 수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특히 자동화·무인화 관련한 대부분의 분야에 다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 [특징주]삼익THK, 삼성 211조 로봇시장 새 먹거리로 낙점 18년간 로봇 파트너
 - 삼성과 삼익의 만남은 18년 전부터 시작됐다. 삼익은 MC사업 초기, 삼성전자의 자동화 설비 구축에 참여하기 위해 2003년 MC사업 수원센터를 열었다. 이후 삼성전자의 로봇 생산 프로젝트에 참여, OEM업체로 함께했다.
- [특징주]아진엑스텍, 삼성電에 로봇부품 공급하다 낙점...'제2의 레인보우 꿈꾼다'
 - [특징주] 아진엑스텍, 삼성전자에 산업용 로봇 납품 개시 소식...국내 유일 '모션 제어칩' 개발 부각
 - 아진엑스텍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용 로봇 제조를 위한 스마트팩토리 분야 공정 자동화 장비의 모터의 속도를 제어하거나 이동속도 또는 위치 등을 제어하는 모션제어 사업을 하고 있다.특히 국내에서 유일하게 구축할 수 있는 모션제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 인탑스 "삼성전자 웨어러블 로봇 양산 준비 완료...초도물량 대비 시범테스트 진행"
 - 인탑스는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로봇 프로젝트에서 부품 조달부터 생산 조립, 애프터서비스(AS) 등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데 협력한다. 이 회사는 삼성전자가 요구하는 웨어러블 로봇을 위탁제작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 [특징주] 이랜시스, 삼성 웨어러블 로봇 '봇핏' 감속기 공급 부각 '강세'
- [특징주] 에스비비테크, 삼성전자 웨어러블 로봇 '봇핏' 상용화...봇핏 감속기 공급사 ↑
- 한국투자증권 "에스오에스랩, 美 자율주행 규제 완화 및 테슬라 FSD 확대에 호재 ↑"
 - 에스오에스랩은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에 OHT(반도체 웨이퍼 운반 로봇)용 라이다를 공급하고 있다.
- [특징주]우리넷, AMR로봇 5G 필수...삼성과 로봇 적용 5G 모듈 공동 개발 부각 '강세'
 - 우리넷은 지난해 삼성전자와 로봇 등에 적용 가능한 '국산 1호 5G 모듈'을 개발 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5G 모바일 AP '엑시노스 980'과 모뎀 등을 제공했고, 우리넷등이 RF 안테나를 더해 B2B 5G 모듈과 단말을 개발했다.

2025년 '경차값 휴머노이드' 나온다...핵심부품 국산화 서둘러야★★

- ▶ 감속기: 에스피지, 에스비비테크, 웰콘시스템즈
- ▶ 모터: 케이엔알시스템, 로보티즈, 삼익THK, 하이젠알앤엠
- ▶ 엔코더: 알에스오토메이션
- ▶ 제어기: 아진엑스텍, 알에스오토메이션
- ▶ 그리퍼: 로보티크, 주강로보테크
- ▶ 이미지센서: 라온피플, 시냅스이미징
- ▶ 힘 센서: 로보티즈, 에어딘로보틱스
- ▶ 포음파센서: 하기소닉, 엘레파츠
- ▶ SW: 클로봇, 씨메스, 빅웨이브로보틱스
- ▶ 스마트팩토리: SFA, 고양, 포스코DX, LG CNS
- ▶ AI알고리즘: 네이버랩스, 마음AI, 원더풀플랫폼

美 피규어AI, 휴머노이드 로봇 첫 판매·납품★

미국 피규어 AI가 자사 휴머노이드 로봇인 '피규어 02' 시스템을 구매 고객에게 인도했다고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발표했다.

브렛 애드콕 피규어 AI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흥미로운 소식이다. 오늘 피규어가 공식적으로 매출을 창출하는 회사가 됐다!"며 "이번 주에 F.02 휴머노이드 로봇을 상업 고객에게 인도했고, 그

들은 현재 열심히 작업 중이다"라고 링크드인에 밝혔다.

中, 휴머노이드 로봇이 쏟아진다★

중국 기업들이 하반기 들어 휴머노이드 로봇 대량 생산을 속속 시작하고 있다. 새해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 시대 도래를 예고하고 있다.

30일 중국 로봇 기업 러쥬로봇은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라인을 26일부터 가동했다고 밝혔다. 연간 200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생산할 수 있는 라인이다. 풀가동시 생산액이 3억 위안(약 604억원) 규모다.

< IT / 기술 >

주요일정

1월 3일 산업부-국방부, 국방분야 3D프린팅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1월 5일 CES 2025 미디어 데이(~6일)★

1월 7일 CES 2025(~10일)★

AI 넘어 세상 바꿀 기술...양자컴퓨터, 넌 누구냐

인공지능(AI) 시장이 커질수록 막대한 계산량을 처리할 수 있는 양자컴퓨팅 기술 발전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미국 정책당국은 2024년 AI와 양자컴퓨터 분야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했다. 유엔(UN)은 2025년을 '세계 양자 기술의 해'로 규정지었다. 양자컴퓨터는 AI, 신약 개발, 우주공학, 재료과학, 금융 모델링, 기후 변화 등 인류가 풀지 못한 다양한 숙제를 해결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양자과학 퀀텀점프의 해"...韓·美·中 기술전쟁 격화★

31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유네스코와 한국물리학회회를 포함한 전 세계 물리학회들이 2월 '양자 과학기술의 해' 선포식을 가질 예정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참석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앞서 유엔이 새해를 '양자과학기술의 해'로 지정한 데 이어 민간 차원의 정책 제안과 국제 협력 등을 위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전해졌다. 7일(현지 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하는 세계 최대 정보기술(IT) 전시회 '소비자가전쇼(CES) 2025'에서도 각국이 신기술을 과시하는 양자 특별 프로그램이 열린다.

[기획] 양자컴과 AI의 '공진화'...'QAI' 빅뱅 온다★

영국 양자 기술기업 옥스퍼드아이오닉스의 리스 밸런스 CEO는 31일(현지시간) 캐나다 한 매체에 "2025년에는 양자컴퓨터가 연구소를 벗어나 '현실세계'로 나아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푸른 뱀의 해' 을사년에 양자컴퓨팅과 인공지능(AI)의 공진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AI에 비해 진화가 다소 느렸던 양자컴퓨팅 기술이 최근 '퀀텀점프'를 이뤄내면서 2025년 두 기술이 시너지를 빚어내는 'QAI(Quantum Artificial Intelligence) 빅뱅'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美실리콘밸리서 AI-RAN 기술시연..."AI기반 6G 상업화 기대"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무선접속망(AI-RAN) 기술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시연하는 등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RAN에 AI 기술을 내재화해 통신 효율과 안전성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글로벌 통신사들도 삼성전자의 기술이 AI-RAN 상용화를 촉진하는 것은 물론 AI 기반 6세대 이동통신(6G) 상업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기반시설 건설 입찰 착수...내년 6월에 착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기반시설 공사를 맡을 주관 건설사 선정에 착수했다.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기반시설 공사는 산업 기술개발과 선도적 기초·원천연구 지원을 위해 세계적 수준의 첨단연구인프라인 방사광가속기를 2029년까지 충북 오창에 구축하는 사업이다. 설명회는 2월 4일에 열리고, 이후 4월 중순까지 건설사들로부터 정부가 기술 제안서를 받은 뒤 주관사를 선정하게 된다. 착공은 내년 상반기다.

초전도체와 그래핀의 결합, 전자 소자의 새 지평 열다★

국내 연구진이 초전도체와 그래핀을 접합해 그래핀의 특성을 조절할 수 있는 소자를 만들었다. 초전도체와 그래핀이라는 혁신적인 소재를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셈이다. 연구진은 그래핀을 보호하는 부도체인 '육방정계 질화붕소' 특정 부분을 정밀하게 깎아내어 그래핀의 표면을 노출하고, 이 위에 초전도체를 접합했다. 장성 연구원은 "기존 1차원 접합 방식은 그래핀의 극성을 자유롭게 제어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연구에서 개발한 2차원 초전도 접합 기술은 그래핀의 전기적 특성을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어 새로운 전자 소자와 연구 분야를 열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nomad:
초전도와 그래핀. 시장을 발작시키는 두 개의 마법 단어가 써 있네요.
올해 기대를 좀 해볼까요.

< 가상자산 / 가상현실 >

Crypto Fear & Greed Index - Bitcoin Sentiment - Alternative.me



Bitcoin was the best investment of 2024, but not without its usual volatility.

비트코인은 2024년 최고의 투자였지만, 평소와 같은 변동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교환 거래 펀드가 더 널리 채택되고 새 대통령 행정부의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디지털 자산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상승하면서 비트코인은 2024년에 가장 좋은 성과를 거둔 자산 클래스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의 거래에서 알 수 있듯이 암호화폐를 소유하는 것은 예측 불가능성과 어지러운 변동성을 동반하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연초 4만 달러대에서 시작한 이후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며, 최근 9만 4,000달러에 가까운 가격에 거래되었습니다. 이더리움은 연초 대비 50% 가까이 상승했으며, 최근 약 3,355달러에 거래되었습니다.

비트코인 '트럼프 혼풍' 계속될까... 'S·D·K'를 주목하라

시장에서는 올해 비트코인이 20만달러대까지 상승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지난해 트럼프 당선인의 승리가 비트코인 상승세를 견인한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하면 새로운 상승 기회가 열릴 것이란 전망이다.

비트코인 가격 향방의 가늠자가 되는 주요 지표로는 테더 등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과 비트코인 도미넌스, 김치 프리미엄 등을 꼽을 수 있다.

스위스, 중앙은행 '비트코인 비축 의무화' 되나... 국민투표 부친다

스위스 암호화폐 옹호론자들 10명 등으로 구성된 단체가 스위스 중앙은행(SNB)이 보유금의 일부를 금과 비트코인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시작했다. 중앙은행의 비트코인 보유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이번 이니셔티브는 스위스 연방 총리가 발표했다. 국민투표를 통과할 경우, SNB는 법에 따라 비트코인을 비축금에 포함하게 된다.

nomad: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그는 솔라나와 이더리움 본사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액션스퀘어 장현국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기업으로 대전환"

장 대표는 "액션스퀘어에 영입이 됐다기보다는, 사실상 새로운 창업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게임 개발사인 액션스퀘어를 블록체인 게임 및 플랫폼 기업으로 대폭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첫 출발은 이더리움과 연계된 새로운 레이어1(자체 네트워크 기반) 블록체인 메인넷이다. 장 대표는 "1월 말까지 스위스 추크에 새로운 블록체인 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거점으로 삼아 2월에는 토큰 발행 및 ICO(가상자산공개) 또는 IEO(거래소를 통한 코인 판매)를 진행할 것"이라며 "3월에는 이와 연동한 첫 번째 게임을 출시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장 대표는 "2월 중 주주총회를 거쳐 회사명도 새롭게 변경할 계획"이라며 "김연준 공동대표는 기존에 액션스퀘어가 진행하는 게임사업을 총괄하고, 블록체인 사업은 내가 맡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양한 국내외 게임을 블록체인 생태계 내에 끌어들이고, 자유롭게 게임 토큰을 거래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nomad:

없다가 생긴 게 나와버린 회사가 됐습니다. 정말로 갈지 아닐지는, 시간이 결정하죠. 단 3개월 내에 보여주겠다는 거네요.

머스크, X계정 '케키우스 막시무스'로 변경...동명 밈코인 900% 급등

1일 영국 BBC 등 외신에 따르면 머스크는 전날 자신의 X 계정 이름을 자신의 본명 '일론 머스크(Elon Musk)'에서 케키우스 막시무스로 바꿨다. 프로필 사진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밌으로 자주 등장하는 '개구리 페페' 캐릭터가 게임 콘솔을 들고 있는 이미지로 변경했다.

머스크의 갑작스러운 계정명·프로필명 변경이 같은 이름의 밌코인 '케키우스 막시무스'의 가격을 올리기 위함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뉴욕포스트는 "(가상자산 통계 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머스크가 계정명을 바꾼 이후로 케키우스 막시무스의 가치가 900% 넘게 급등했다"고 전했다.

모델솔루션 AI 스마트고글 'CES 2025 혁신상'

한국엔컴퍼니(000240)그룹의 계열사 글로벌 혁신 하드웨어 플랫폼 기업 모델솔루션(417970)은 주요 고객사와 공동 개발한 혁신 제품으로 'CES 2025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CES 2025 혁신상'에 선정된 제품은 인공지능(AI), 확장현실(XR) 기술 전문기업 버넥트와 공동 개발한 'AI 스마트 고글'이다.

'AI 스마트 고글'은 디지털 트윈 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하도록 설계되었으며, 클린룸 환경에서 제조해야 하는 반도체 및 의료기기 생산의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다.

< IP / 엔터 >

주요일정

1월 5일 골든글로브 시상식

1월 8일 세븐틴 부석순, 새 앨범 '텔레파티' 컴백

1월 13일 아이브, '레블 하트' 음원 공개

오징어 게임 2, 공개 첫 주 넷플릭스 최고 기록 경신... 캐스팅 논란도 '후끈'

한국에서 제작된 넷플릭스 TV 시리즈 '오징어 게임 2'가 공개 나흘 만에 전 세계에서 6,800만 회 시청되며 공개 첫 주 기준 최다 시청 수 기록을 갈아치웠다.

넷플릭스는 지난달 23~29일 콘텐츠 시청 수를 집계한 결과 "오징어 게임 2가 총 6,800만 시청 수(시청 시간 총합을 전체 러닝타임으로 나눈 것)를 기록해 92개국에서 주간 시청 수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넷플릭스가 서비스되는 93개국 가운데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1위에 오른 것이다.

"'오징어게임2', 최소 1조5천억원 이상 수익 기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 시즌2가 최소 1조5천억원 이상의 수익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정훈 K엔터테크허브 대표는 "시즌1의 수익성(제작비 대비 40배)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제작비 대비 최소 10배 이상의 수익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nomad:

스튜디오드래곤, 텍스터, 에이스토리 등 넷플릭스와 연계된 미디어 제작사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 관련주

- [특징주]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오징어게임2 기대감에 24% 급등
- IBK證 "아티스트스튜디오, 경영권 분쟁 마무리되며 경쟁력 구축"
- '오징어게임2' 흥행 기대감에 '이정재 관련주' 상한가

- 이들 기업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위지웍스튜디오도 전일 대비 26.4% 급등한 1580원에 거래되고 있다.
- [특징주] 쇼박스, '오징어 게임' 시즌2 세트장 공개... 투자사 부각
- 상상인證 "텍스터, '오징어 게임 시즌 2' 작품 모멘텀 기대"
- [특징주]해태제과식품, '오징어게임2' 공개 앞두고 컬래버 부각↑
- 오징어게임 손 잡더니...오뚜기 대박 났다

< BIO >

주요일정

1월 12일 BFC 글로벌 헬스케어 컨퍼런스

1월 13일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JPM)(~16일)★

유럽 점령한 K바이오시밀러...시장점유율 50% 돌파

셀트리온, 삼성바이오에피스 등 국내 바이오시밀러 대표 주자들의 유럽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어섰다. 유럽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6대 블록버스터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이룬 성과다.

'탈모약' 속도 내는 K바이오... '장기지속형' 주사제로 안전성 확보 노린다

상업화가 가장 빨리 될 것으로 기대되는 곳은 종근당이다. 종근당이 남성형 탈모치료제로 개발 중인 신약후보물질 'CKD-843'은 식약처로부터 임상 3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아 현재 환자 모집 중이다. CKD-843은 3개월에 1회 투여로 기존 경구제와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기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웅제약은 위더스제약, 인벤티지랩과 함께 탈모 치료 장기지속형 주사제 IVL3001을 개발 중이다. 이 주사제는 1개월에 1번 투약하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IVL3001은 호주에서 임상 1상을 1년간 진행해 탈모 치료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인체 검증 결과를 도출했다. 기존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최대 위험 요소인 초기과다방출 현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치료 효과와 안전성 측면에서 장점을 갖췄다는 평가다.

'국산 항암제 최초' 美·유럽 뚫은 유한양행 '렉라자'... 中·日 진출도 기대감

12월30일(현지시간) 존슨앤드존슨(J&J)은 자회사 이노베이트브 메디슨(구 안센)의 '리브리반트'(성분명 아미반타맵)와 유한양행의 렉라자 병용요법이 유럽집행위원회(EC)로부터 진행성 비소세포폐암(NSCLC) 중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EGFR) 변이(엑손19 결손변이 또는 엑손21 L858R 치환변이)를 가진 성인 환자 대상 1차 치료제로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병용요법은 앞서 같은 해 11월 유럽의약품청(EMA)의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로부터 허가 권고 의견을 받은 바 있다. 이번 허가로 유한양행은 이노베이트브 메디슨으로부터 3000만달러(약 440억원) 규모의 마일스톤(단계별 기술료)을 수령할 전망이다. 유럽 내 렉라자 매출에 따라 10% 이상의 로열티도 받게 된다.

큐로셀 CAR-T 치료제 '림카토', 2025년 첫 국산 신약 후보 물망

업계에 따르면 큐로셀은 지난해 12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차세대 CAR-T 치료제 림카토 품목 허가를 신청했다. 임상시험 최종 보고서에 기반을 두고 혈액암의 일종인 재발성·불응성 거대B세포 림프종 적응증에 대해 승인을 요청했다. 림카토가 2025년에 첫 국산 신약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대상 약제로 선정된 점이 꼽힌다. 이에 따라 림카토는 식약처의 품목 허가와 보건복지부의 급여 평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가 협상 절차가 동시에 진행된다.

* FDA update

HLB생명과학

510(k) Premarket Notification

Device Classification Name	Syringe, Piston
510(k) Number	K241856
Device Name	Sofjec (Single use Needle); Sofjec (Single use Syringe with or without Needle); Sofjec (Membrane Filter Syringe)
Applicant	HLB LifeScience Co., Ltd. 122-39, Geopdanji-Ro, Gongdo-Eup, Anseong-Si Gyeonggi-Do Anseong, KR
Applicant Contact Correspondent	JiWon Han MEDIGUIDE Inc. #410, 17, Deogan-Ro 104beon-Gil, Gwangmyeong-Si Gyeonggi-Do, KR 14353
Correspondent Contact	Yongjun Lee
Regulation Number	880.5860
Classification Product Code	FME
Subsequent Product Code	FMI
Date Received	06/27/2024
Decision Date	12/23/2024
Decision	Substantially Equivalent (SESE)
Regulation Medical Specialty	General Hospital
510k Review Panel Type	General Hospital Special
Reviewed by Third Party	No
Combination Product	No

< 정치 >

주요일정

1월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준비기일

영장불응尹 "끝까지 싸울것"...野 "지지자들 선동 획책, 체포해야"

崔대행, 국회몫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 임명...野추천 1명 보류(종합)

崔, 헌법재판관 2명 임명·쌍특검법 거부권...여야는 유불리 셈법

崔대행 '헌법재판관 절충'에 여야정 '동상이몽' 당혹·비판·유감

우의장, '헌법재판관 2명 임명'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

여야,崔대행 '헌법재판관 2명 임명' 비판...용산 '반발' 사의표명

대통령실 실장·수석,崔대행에 집단사의...野 "尹탄핵저지 항명"(종합)

권영세, 대통령실 사의표명에 "국정안정 방향으로 행동했으면"

"崔권한대행, 대통령실 참모진 일괄사표 수리계획 없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대행, 사직서 제출...헌재 재판관 임명에 반발(종합)

헌재 8명 체제 본격가동...정계선·조한창 재판관 내일 취임식★

75일 만에 '8인 체제' 된 헌재...尹·韓 탄핵심리 속도 낼 듯★

사상최다 탄핵사건 받은 헌재...법 지키려면 올해 10건 끝내야

한덕수 총리 탄핵·권한쟁의심판 주심에 김형두 재판관

[신년사] 헌재소장 대행 "사회적 관심사건 신속·공정한 재판"

與, '내란 종사' 구속기소 여인형·이진우 보직해임 절차 착수

與, 쌍특검 재표결 방어 준비...재표결 후 수정안 협상 가능성

이재명, 대권주자 적합도 30%대 '독주'...與후보들은 한 자릿수

홍준표 "국민이 준 권력 자제 못하고 폭주...비상사태 온 것"

文 "새 아침 태양처럼 희망 나누자...국민이 사악함 물리칠 것"

崔 권한대행, 현충원 참배..."민생과 국정안정에 온 힘"

< M&A / 주요 공시 >

한울소재과학, 138억 규모 유증 납입 완료...양자사업 투자

회사 관계자는 "통신사업부 구조조정을 완료하고 4년째 이어온 양자통신·양자암호 사업부의 수익화가 기대된다"며 "신규 소재사업을 통한 신규 매출로 기대에 부응할 신년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주주서한 발송...23일 임시주총 지지 호소

최 회장은 고려아연이 99분기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으며 2023년 주주환원을 69% 달성, 최근 ESG 학회의 ESG 대상 선정 등으로 ESG 등급 향상이 이뤄지고 있지만, 영풍은 잇단 영업 적자와 저조한 주주환원을, 환경오염 및 중대재해 제재 등에 휩싸여 있다고 비교했다.

< 기타 >

조선업, 2025년도 성장세 순항 예고...관건은 '비용 관리'★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2024 조선해양산업 동향 및 2025 전망'에 따르면, 2025년 국내 조선 3사의 매출은 평균 7~1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LNG선 수주잔량 확대 △해양플랜트 프로젝트 재개 △특수선 부문 신규 수주에 따른 것이다.메리츠증권은 2025년 국내 주요 조선사들의 수주 잔액이 2024년 3분기 말 대비 10.3% 증가한 1372억 달러(약 202조5072억원)약 전망하며, LNG 운반선의 수주가 그 주요 동력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에너지 마리타임 어소시에이츠(EMA)는 2024~2028년 글로벌 해양플랜트 발주 규모가 최대 1730억 달러(약 255조3480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해양플랜트 선두주자인 삼성중공업은 공을 들이고 있는 모잠비크 프로젝트 이후에도 대형 해양플랜트 발주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성장세는 지속될 전망이다.미 의회조사국(CRS)은 FY2025 NDAA: Defense Industrial Base Policy를 통해 2030년까지 미 해군 MRO 예산은 연간 25% 이상 증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시장 규모는 올해 약 20조원에서 2030년 약 76조2000억원으로 3.8배 성장할 것으로 추산된다.한화오션은 미 해군 7함대 군수지원함과 급유함 정비를 수행하며, 필리 조선소를 인수해 MRO 사업을 확장 중이다. HD한국조선해양은 2024년 7월, 미 해군보급체계사령부와 함정정비협약(MSRA)을 체결해 향후 5년간 MRO 사업 참여 자격을 확보했다.

[세계 밝힐 K기술] 中, 선박 수주 쓸어가도 韓 엔진 없으면 못 움직여★

중국이 세계 선박 건조 발주를 휩쓸면서 중국의 한국산 선박 엔진 수입도 늘고 있다. 중국이 액화천연가스(LNG·Liquefied Natural Gas)·메탄올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 수주와 건조를 늘리면서 한국 업체들이 기술 우위를 보유한 친환경 연료 엔진을 대거 사들인 것이다.

260,000,000,000원...'무안참사' 예약금 환불 행렬에 제주항공 '비상'★

제주항공이 고객들에게 항공권을 판매하고 받은 선수금 규모는 약 2606억원으로, 이는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중 최대 규모다.제주항공 집계에 따르면 지난 12월 29일부터 30일 오후 1시까지 제주항공 항공권 취소 건수는 약 6만8000건이다. 대부분의 취소 건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고가 벌어진 29일 오전 9시 이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제주항공 측은 현재 사고 수습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사고 이후 취소량은 평소보다 많은 수준"이라면서도 "신규 유입량도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nomad:

망하냐 망하지 않냐. 살리냐 살리지 않냐.

주가 측면에서는 과도한 공포냐, 실제 리스크냐를 판단해야겠쥬.